

현대중공업가족

2018 03

창사 46주년, 아산의 창업정신 되새겨 재도약

창조적 도전가, 아산 / 아산을 기억합니다! / 책으로 만나는 아산 / 현대중공업 창사 46주년 / 사우들의 한마디



창사 46주년, 아산의 창업정신 되새겨 재도약

- 04 창조적 도전가, 아산
- 06 아산을 기억합니다!
- 10 책으로 만나는 아산
- 12 현대중공업 창사 46주년
- 14 사우들의 한마디

사람·일

- 16 새 얼굴, 새 활력
현중인의 탄생
- 18 뉴스포커스
현대미포조선 5% 니켈강 신 용접기술 개발
- 20 자랑스러운 사우들
현대중공업공과대학 우수졸업생 이재형·이성구 사우 /
평생교육 전도사 현대미포조선 손덕화 사우
- 22 현장을 가다
현대삼호중공업 도장2부 도장1팀
- 26 우리 부서 미니 사보
현대로보틱스 로봇시스템기술팀
- 28 이달의 도전
현대삼호중공업 오재명·김아진 사우 부부
- 30 든든한 파트너
(주)영광공작소
- 32 직장인 생활백서
직장 내 끈대문화



3월에는 꽃이 되고 싶다
마음에서 고운 향기가 나는 꽃

꽃을 본 사람마다
가슴에 행복이 담기는
행운의 꽃이었으면 좋겠다

꽃인 내가 행복한 것처럼
모두가 행복한 꽃이 되었으면 좋겠다

윤보영의 「3월에는 꽃이 되고 싶다」 중에서

사진 손경식 (현대중공업 문화홍보팀)



18



28



42

현대중공업 문화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9

현대미포조선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546

현대삼호중공업 총무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12



22



62

지역·삶

34 지역 소식

학성공원 울산동백축제 / 태화강 정원박람회

36 자녀와 함께 낭만적인 글램핑

38 만나보았습니다

현대중공업 하역물류팀 김유식 기장

40 맛있는 이야기 향긋한 미나리

42 가볼 만한 곳

포항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44 걷기 좋은 길 양산 배내천 트레킹 길

46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방어동 유연옥 씨

48 건강칼럼 쿠싱 증후군

5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결산

보람의 일터

52 뉴스 하이라이트

56 그룹사 소식

58 문화포커스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유니버설발레단 '지젤(Giselle)'

60 이달의 영화 톰 레이더 VS 퍼시픽 림: 업라이징

62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K-Pop 댄스

64 축구단 소식

66 트렌드 따라잡기 클래식 페이크

68 현중 가족 글마당

76 사우들의 추천 도서

78 축하합니다

80 생활법률

81 만화

82 쉬어가는 페이지

83 공감 마당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온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능한가라고 물었으니 불가능이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나는 절대로 가능하다. 반드시 해 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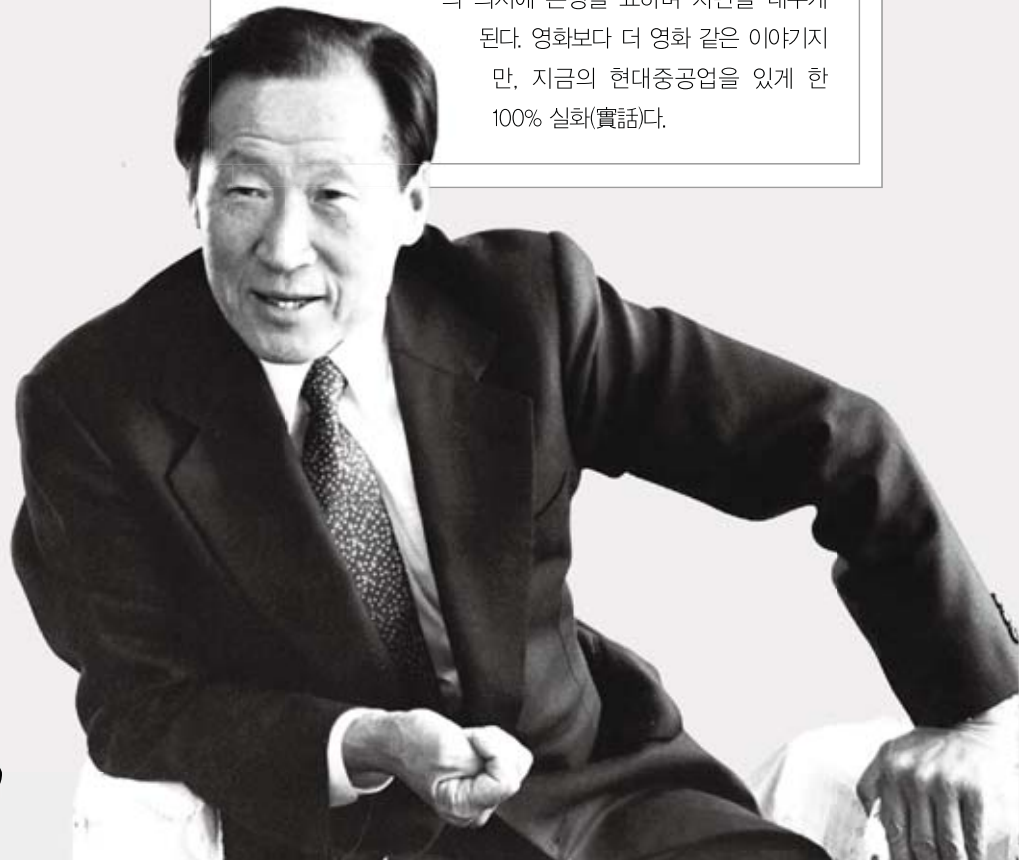
— 1971년 바클레이즈 은행에 차관 요청 시

1970년대 초 현대중공업이 자리한 울산 동구 지역은 수백명의 농어민이 거주하던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 정주영 창업자는 이곳에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짓기로 마음 먹었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당시 국내의 재정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했기에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해 봐야만 했던 것이다.

영국으로 건너간 창업자는 A&P 애플도어사의 롱바툼 회장을 만나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다. 그를 통해 어렵사리 바클레이즈 은행 관계자를 만났지만, 차관 상환 능력에 의문을 제기 당했다. 선박을 수주해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는 은행. 이는 사실상 차관을 거절하겠다는 의사였다.

하지만 창업자는 그 길로 ‘그리스 선박왕’ 리바노스 회장을 찾아갔다. 사업계획서와 부지 사진을 보여주며 그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26만톤급 유조선 2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한다. 결국 바클레이즈 은행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창업자의 의지에 존경을 표하며 차관을 내주게 된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의 현대중공업을 있게 한 100% 실화(實話)다.

“길을
찾아라,
|
아니면
만들어라!”



명언에는 힘이 있다. 우연히 접하게 된 몇 마디 짧은 글귀에 불가능을 비웃을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지친 마음에 생기가 돌기도 한다.

창사 이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현대중공업그룹이지만, 지금 우리가 맞서야 할 도전은 새삼 낯설기만 하다.

오늘을 살며 내일에 도전하는 우리에게 수십 년 전 창업자의 명언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가능성을 믿는 민족만이 국가를 부흥시킬 수 있다. 이것은 엄연한 진실이고 인류생활 발전의 철칙이다. 울산 조선소는 이 철칙의 상징으로서 서 있다”

- 1983년 신입사원 하계수련대회 특강에서

정주영 창업자는 일생 동안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손사래치는 영역에 도전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왔다. '최고(最高)', '최대(最大)', '최다(最多)', '최단(最短)' 등 창업자와 현대중공업의 수식하는 영광의 칭호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의 산물이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해내는 세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성과를 이루며, 세계 속에 '현대'의 이름을 아로새겼다. 그 후로도 2호선 인수 거부와 1,2차 석유 파동, 조선·해운 경기 불황 등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시련을 극복했다.

창사 초기 애써 만든 배를 선주사가 인수 거부했을 때 직접 해운사(아세아상선/現 현대상선)를 설립해 선박을 운영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또, 초대형 유조선(VLCC) 건조 경험 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던 시절, 오일쇼크로 수주가 끊기자 다목적 화물선, 벌크선 등 다양한 선종에 도전하며 신(新)시장을 개척했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 한계라고 규정짓는 일에 도전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기쁨을 보람으로 기업을 해왔고, 오늘도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 1983년 동아일보사 간부 세미나에서

“호경기와 불경기는 항상 있는 것이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고 단결하면 어떠한 불경기도 이겨나가고 잘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 활발하게, 더욱 단결해서 전진해야 한다.

- 1985년 4월 특별훈사에서

198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 약 800~900여만톤의 선박 과잉 사태가 발생하며 주요 선사들의 신조 발주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자연스럽게 조선 시장은 위축되었고, 언론에서는 '수출 효자' 조선업에 찾아온 위기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정주영 창업자는 이를 선박 건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기술개발로 눈을 돌렸다.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온 불황의 시간이었지만, 현대중공업은 전혀 다른 시간을 보냈다.

다시 호황기가 찾아왔을 때 이미 뛰어오를 준비를 마친 현대중공업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다. 정주영 창업자의 선견지명과 위기를 대하는 담대한 자세가 만든 성과였다.

시대는 다르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창업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고, 그 길이 막히면 바다로 눈을 돌릴 것이다. 도전에 따르는 모험과 위험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창업자의 명언을 떠올려 보자. 새로운 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보다 쉽게, 그리고 담담하게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완벽한 100%를 채우는 것이지,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 넣지 않는다”

-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중에서

아산의 발자취, 그가 남긴 — ‘진정한 가치’에 대한 — 메시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이끈 진정한 기업인이자 불굴의 도전자, 아산 정주영 창업자.

오는 3월 21일이면 창업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7년이 되지만, 그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될 만큼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창업자가 실천하고, 강조한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사보편집실에서는

아산리더십연구원에서 진행한 인터뷰의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해보았다. 아산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자.

이윤보다도 ‘신용’이 우선



1966년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현장의 峨山.

아산은 이윤보다 신용을 우선시 했죠. 내가 망하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지킨다는 소신을 항상 표현하셨어요. 고령교 공사가 그런 한 예죠. 남들 같은 면 포기했을 텐데, 아산은 온 가족이 살던 집 다 팔아서 공사비에 넣고, 빚을 지면서 공사를 마쳤어요.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봤지만 커다란 신용을 쌓았죠.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공사도 처음 동남아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손해를 봤지만, 그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쌓은 신용으로 이후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쌓았고, 중동까지 이어갈 수 있었어요.

신용에 타격을 받는 이윤은 절대 추구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신용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건 사기치는 놈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셨어요. (유재환 현대중공업 前 사장)

몸에 밴 검소함



峨山の 구두.

본인에 대해서는 철저하셨습니다. 와이셔츠를 소매하고 목만 바꿔서 계속 입으셨어요. 구두도 접히는 곳에 구멍이 날 때까지 창을 바꿔서 신으셨어요. 바지도 작아지면 허리 부분에 천을 대고, 엉덩이도 덧대어 늘려서 입으셨어요. 선천적으로 검소한 것을 생활화하셨다고 봐야 하는데, 기부를 하실 때 쓰는 돈은 또 커요.

아산은 옷 한 벌에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잠옷도 옛날 명주로 된 실크 같은 거였는데, 다 헤진 걸 입고 다니셨어요. 누가 좋은 티셔츠를 사 오면, 왜 비싼 걸 사오냐면서 야단을 치시고, 결재하실 때도 만년필 안 쓰시고 모나미 볼펜을 쓰셨어요. 종이도 귀하다면서 이면지를 안 쓰면 크게 혼내셨죠.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검소해서 그런 거죠.

직원들한테도 검소하게 살고 저축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안정되게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고요.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게끔 하려고 저축 운동을 시키고, 사택 공급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준림 현대중공업 前 회장)

※ 아산리더십연구원 : 2012년 4월 개원. 아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산의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림.

아산은 반듯하게 담담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이익을 속으로 따지지 말라는 뜻이지요. 본인도 종이에 여러 번 쓰시고, 액자에 걸어 놓고 보시곤 하셨습니다. 또 주인의식을 갖고 일 해달라고 매번 당부하셨습니다. 당신이 주인이면 이렇게 낭비를 하겠냐며, 적당하게 일하지 말라고 간부들한테도 많이 얘기하셨죠.

(이춘림 현대중공업 前 회장)

아산은 담담하지 않으면 솔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담담한 마음이 정직, 성실인 거죠. 결국은 요령 피우면서 일을 하면 방향도 달라지고, 일의 원동력도 없어서 실패한다고요. 사심을 버리고 담담한 마음으로 일에 매진하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들 훈련을 받았어요. 현대에 있다가 단돈 만원을 착복했다 하면 그 사람은 당장 모가지였습니다. 누구한테 뭘 얻어먹지 말고, 저희한테 사주라고 하셨습니다.

(김광명 현대중공업 前 사장)

창업자님의 카리스마는 대단하시죠. 현장에서 안내하며 같이 돌 때도 참 긴장이 많이 됩니다. 처음 가는 현장을 돌아보며 지적과 지시를 하시는데, 저도 잘 몰라서 외국 기술자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창업자님 말이 맞다고 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아보고 아시지?’ 귀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 어떤 지시를 받든지 간에 ‘하셨습니다’라는 대답이 우선 나오죠.

(김형벽 현대중공업 前 회장)

창업자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분은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하세요. 다 자기가 생각한대로 몰아서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내리시니까 그냥 “우리가 못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하고 따라서 하면 거의 백프로 성사가 되는 거죠.

창업자님은 모든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이든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재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문제를 처리하셨죠.

(김광명 현대중공업 前 사장)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솔선수범을 하시고, 자기보다 항상 남을 먼저 배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게 된 거죠. 월급을 주면서도 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또 일할 때 남보다 더 열심히 일 하고, 어디 나가서 누가 아산이 일에 사력을 다했구나 칭찬할 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내 부하들이 열심히 잘 했어. 훌륭한 부하들 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진정한 카리스마를 갖게 되신 거죠.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집무실에서 峨山.

뛰어난 리더십으로 쌓은 카리스마



1973년 현대울산조선소 시업식.



1984년 2월 서산 간척사업 현장에서의 峨山.

사실 창업자님이 엄하다는 건, 위엄을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현장에 왔다 가시면서 이렇게 회식을 한 번 같이 하면 아주 자상하세요. 근데 일할 때는 항상 위엄이 딱 있어서 직원들이 해이해지지 않게끔 하는 거죠.

(홍석의 현대중공업 前 부사장)

공정한 인재 선발, 적재적소 배치



하계수련회에서 직원들과 씨름하는 峨山.

아산은 학교나 연고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았어요. 다섯 명이 면접관으로 들어 가면, 다섯 모두가 'A'를 줘야 합격을 시켰습니다. 네 사람이 'A'를 준 사람들은 면접관당 재량으로 1명씩만 더 합격이 가능했죠. 그런 것에는 정말로 철저했습니다.

(이춘림 현대중공업 前 회장)

창업자님은 신입사원들을 수련회 때부터 함께 하며 성격들을 파악하셨어요. 입사하고 처음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그냥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들으시고, 사람마다 적재적소에 써먹을 곳을 찾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석의 현대중공업 前 부사장)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



1983년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峨山.

직원들이 일을 잘못했을 때는 일의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셨어요. 정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인지, 노력이 부족해서 결과가 나온 것인지 따지시죠.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원할치 않아서 그랬다는 것과 좋은 환경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이 다르니까요.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다가 안 되겠다고 결정이 나면 다 잊어버리세요. 담당자 문책 같은 건 없어요.

(유재환 현대중공업 前 사장)

안될 것도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안 된 이유가 타당하면 문책은 안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일을 해가지고, 잘못되어서 파면 당하고, 그만두게 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은 안되지만, 그 외에 하려고 하다가 안된 거는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김형벽 현대중공업 前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아산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을 굉장히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약속이 없는 일요일에는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직원들과 운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하루 종일 놀다가 헤어지시는 게 직원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사람이 전 재산이라는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본인이 워낙 어려운 데서 출발하셨

기 때문에 종업원들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어떤 기업가들보다 더 앞서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산이 근로자들을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까이서 봐왔었으니까. 그렇게 근로자들과 직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종업원들과 그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잘 되길 바라면서 종업원들이 많은 울산의 교육사업에 특히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산은 처음부터 본인이 어렵게 생활 하셔서, 종업원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으십니다. 봉급이 하루라도 늦게 나오면 “어떻게 그거 하나 마련 못하냐”면서 중역들을 혼내셨죠. 한 번은 자금이 안 돌아서 상여금을 제때 못 주게 생긴 적이 있었어요. 담당 직원들이 다 동원돼서 은행에 가서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조선사업본부장인 저한테도 은행을 갔다 오라고 하셨죠. 회사가 돈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 쓰는 돈이고, 선박 건조 진행률에 따라 언제쯤 돈이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 애길 잘 해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아산은 종업원들을 신경 쓰셨어요.

작업복 하나도 제대로 된 옷 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은 엉터리 옷이 납품된 거예요. 면이 나빠서 한 번만 빨아도 이만큼씩 옷이 줄어들는 거예요. 아산은 “종업원 생각도 안하고, 너희 편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만들어 줬어!” 하시면서 난리를 치셨죠. 품질 검사를 했지만, 납품하는 사람한테 속은 거죠.

해외현장에 오가실 때도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세요. 비행기에서 쓰시는지, 어느 때는 엽서나 편지를 보내고 그러셨어요. 수고스럽겠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해달라고 부탁 같은 것도 쓰시고요.

(홍석의 현대중공업 前 부사장)

아산은 영리적인 것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중흥시키는 사업을 쫓아서 쫓 하셨어요. 아산의 체질과 사상이 소프트웨어 쪽에는 잘 안 맞기도 했지만, 시대적으로도 필요한 때에 그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 받는 사업가로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광명 현대중공업 前 사장)

창업자께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해외 나가서 일을 해보니 많이 고생이 되더라. 한국 직원들에게 돈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서 고생을 많이 하니 한국 내에서 큰 공장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창업자님은 자기가 기업을 많이 만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가족과 모두가 살아 나가게 하는 것이 자기가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이유라고 생각하셨던 거 같습니다.

(김형벽 현대중공업 前 회장)



1978년 중동 방문 당시 기능직 직원들을 위한 운동회에 참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峨山.



현대중공업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峨山.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며



1960년대 후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峨山.

아산의 '삶의 철학'에서 세상을 배우다

■ 중·고등학생에게 권하는 책



이 땅에 태어나서 - 나의 살아온 이야기

정주영著, 솔 출판사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상상 초월의 업적을 이룬 정주영 창업자의 서민적인 감성과 도전정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가장 진솔하고 담담하게 들려주는 자서전이다.

정주영 회장의 부모님과 소년 시절을 다룬 '고향, 나의 부모님'으로 시작해, 평범하지만 잊기 쉬운 행복의 조건을 다룬 '나의 철학, 현대의 정신'으로 마무리된다.

총 9장으로 나뉘어 펼쳐지는 아산의 일대기를 통해 자신의 열성적인 인생과 현대의 발전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준다.



아산연구총서 -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

울산대학교 著, 아산리더십연구원 푸른숲

정주영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고인의 업적과 성취를 재조명해 아산 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계승하기 위해 발간된 총서이다.

연구총서는 창업자의 정신과 가치관을 각각 '열과 꿈', '사람과 삶', '살림과 일', '나라와 훗날' 등 4개 주제로 구성했다.

경제, 문화, 심리, 철학, 역사 등 각 분야의 학계 전문가 20명이 연구와 집필에 참여해 우리 사회에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주영 이봐, 해봤어?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박정웅 著, 프리이코노미북스

10여 년 간 정주영 회장을 보좌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일화들을 저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구성, 생생한 스토리로 풀어낸 책이다.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이야기, 아산의 정신과 기상, 인간 정주영의 모습 등을 파트로 나눠 구성하였다.

부록에서는 명예박사 학위 수여사에 담긴 창업자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구하기 힘든 흑백 사진, 한국 경제사와 맥락을 같이 했던 창업자의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요즘 사회는 자신이 타고난 술가락으로 운명을 결정하려는 풍토가 만연해있다. 우리 자녀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서겠다는 생각보다 환경의 제약 속에 체념하고 굴복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불굴의 도전정신을 가진 정주영 창업자의 뜨거운 삶을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

어떤 후광도 없이 스스로 일어나 빛이 된 창업자의 이야기가 시도조차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확고한 신념과 도전정신의 작은 불씨를 일으킬 것이다. 정주영 창업자는 “첫째 스승이 부모님이셨다면 둘째 스승은 책 읽기였다”고 말했다. “이봐, 해봤어?”라는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해 아산 관련 도서들을 소개한다.

■ 초등학생에게 권하는 책



정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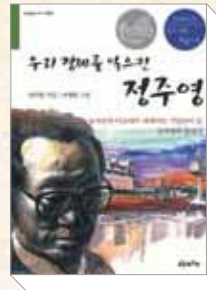
남경완 著, 비통소

현대 기업을 취재한 경험을 살려 정주영 회장의 생애를 꼼꼼하게 되살리고, 만화가의 단순하고 재치 있는 그림으로 아이들이 접하기 쉽다.

부록에는 정주영의 어록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주영 창업자의 모습을 소개한다.

또, 정주영 창업자의 고향인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의 사계절 이름을 알아보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산세를 사진으로 보여 준다.

이외에도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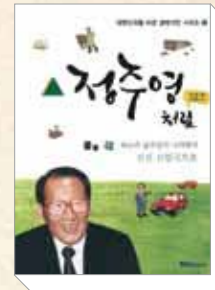
우리 경제를 일으킨 정주영

양지원·이명환 著, 청개구리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현대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우리나라 견인차 역할을 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꾸며내고 있다.

정주영 창업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사를 소개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는 자세하게 낱말 뜻을 풀이해 놓았다.

또한 '사진으로 보는 정주영'이란 부록으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창업자와 현대에 관한 사진을 실어 보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정주영처럼 - 대한민국을 바꾼 경제거인 시리즈

박시온 著, FKI미디어

‘대한민국을 바꾼 경제거인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 정주영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온갖 역경을 이겨내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기적 같은 일화들이 나열되어 있다.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도전해서 이루는 ‘도전정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검증해보는 ‘창의력’, 실패 안에서 성공의 원칙을 지켜 더 큰 신뢰를 얻은 ‘성공한 실패’, 자신이 잘 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데 기여하려는 ‘역사의식’ 등 정신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정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현대중공업이 이달 23일 창사 46주년을 맞는다. 지난 46년간 현대중공업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장을 이뤄왔지만, 지금 현대중공업 앞에 펼쳐진 현실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상황이다.

안전, 품질, 공정 등 기본부터 재점검하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다.

생존 위협하는 최악의 일감 부족

지난 2016년 수주 절벽으로 인한 일감 부족 현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의 올해 매출은 10년 전보다도 적은 7조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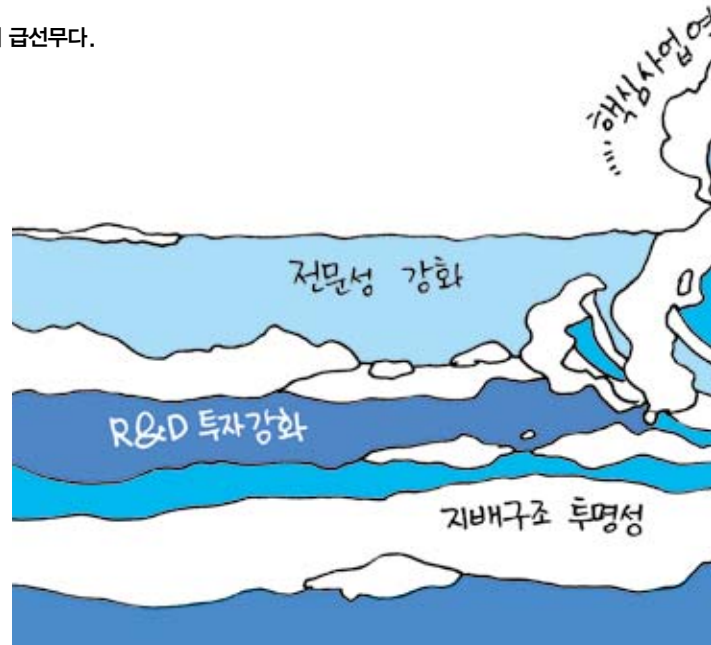
대외 여건도 밝지 못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박 건조 원가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후판가 인상 요구도 거세다.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성장 정체와 위기 상황을 맞는 것은 현대중공업만의 일은 아니다.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기업은 계속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의 미래는 현재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위기를 넘어 재도약한 기업들

과거 50년간 포춘(Fortune) 100대 규모 기업들의 매출 추이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이 상당히 둔화되기 시작하는 성장 한계점이 존재하고, 이 한계점에 도달한 이후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률을 회복한 기업은 11%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사만의 강점과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 도요타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차량 안전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등으로 위



기를 맞았지만, '품질경영'이라는 창업정신을 되새겨 부활의 날개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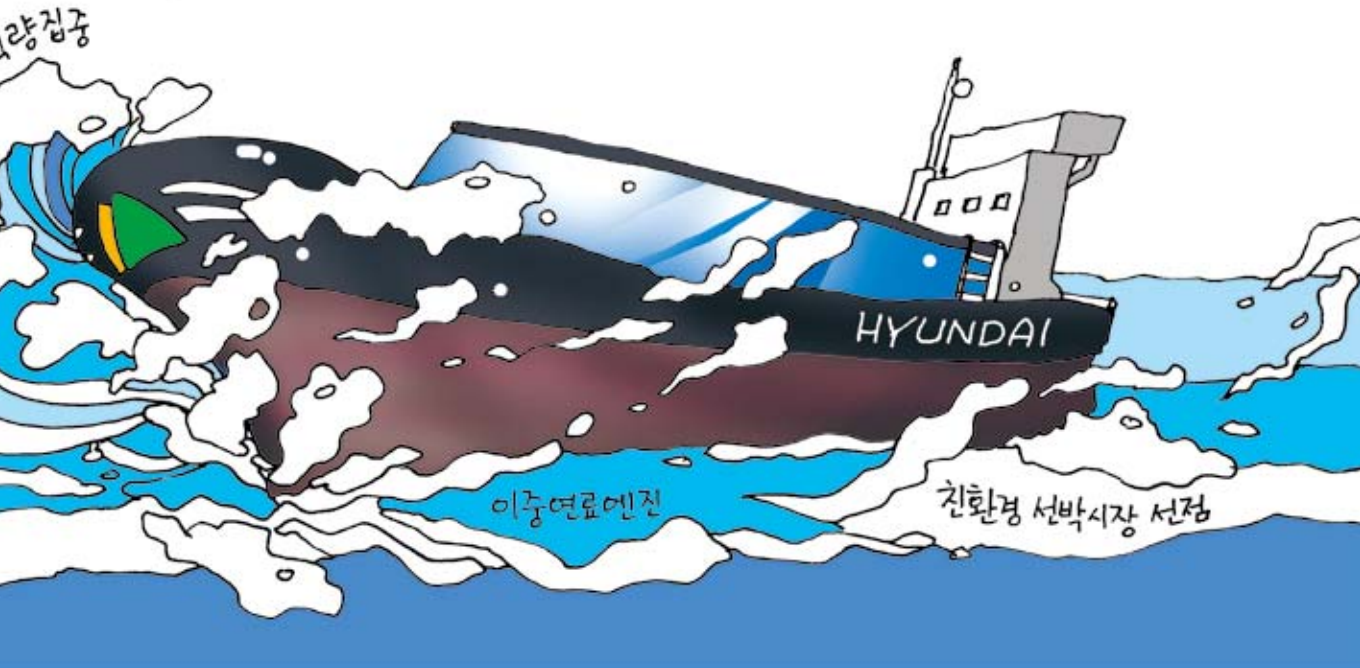
완구회사 레고는 비디오 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했다가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적자를 냈지만, 이후 완구 사업에 집중해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됐다. 또, 디즈니는 방송사 및 케이블 TV 인수 합병 등 확장된 사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핵심 자산인 애니메이션에 역량을 집중해 다시금 황금기를 재현하고 있다.

사업분할로 위기극복 발판 마련

현대중공업도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한 기업들처럼 지금의 유례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정, 경영합리화 등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재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 문화, 고객이 만족하는 완벽한 품질 등 모든 임직원이 심기일전해 다 함께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만, 현대중공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 다시금 성장의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구조를 큰 폭으로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사업분할을 단행,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의 독립법인이 새 출발에 나섰다.

사업분할은 다양한 사업을 한 울타리에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각 회사별로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향후에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그룹사는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 개발을 통해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도약을 위한 노력에 박차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약 1조3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R&D투자를 강화해 사업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현대중공업은 순차입금을 모두 해

소,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게 된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상반기 중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게 돼, 지배구조의 투명성 또한 제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LNG추진선과 엔진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후처리 설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LNG에 이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이중연료엔진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임직원 모두가 창사 초기의 절박한 마음가짐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 문화, 고객이 만족하는 완벽한 품질 등 모든 임직원이 심기일전해 다 함께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만, 현대중공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 다시금 성장의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회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했던 우리

현대중공업이 창사 46주년을 맞았다. 회사와 함께 고난을 이겨낸 우리 사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이 존재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역사를 함께 한 우리 사우들,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나이가 같은 1972년생 사우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희망이 담긴 내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근면성실한 자세로 현장 기술 발전에 최선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부
김병철 기장

저는 1991년에 입사하여 현재 형강 마킹과 절단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수작업으로 형강 마킹을 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2004년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형강 절단용 로봇 자동화를 완료해 참으로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2016년에는 2차로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해 업무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을 다니며 여러 선배님들에게서 근면함과 성실함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많은 사우들이 추운 겨울 살을 에는 바람에도 땀에 작업복이 젖는 줄 모르고 일하며 지금의 현대중공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위기를 겪으며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사우들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장에서 후배들과 동료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전달하여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 회사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현장의 모든 기술을 전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인 현대중공업을 거쳐 현대일렉트릭까지, 올해로 현대중공업그룹에 27년째 근무 중입니다. 수많은 제품이 제 손을 거쳐 갔지만, 매번 '내 자식이다'라는 마음으로 부끄럼 없이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제품은 자식과도 같습니다. 제 이름이 부착된 제품들이 고객들로부터 인정 받아 세상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해낼 때면 못내 뿌듯하다가도 전기설비 사고 뉴스라도 접하면 혹여 내가 만든 제품이 잘못돼 그런 것은 아닌지 가슴이 덜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차단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품인 만큼, 올해도 원칙을 준수하여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내 자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현대일렉트릭 중저압차단기부
이곡숙 기원

20여년의 용접 노하우가 새로운 업무 경쟁력



현대건설기계 품질경영부
여정호 기원

현대중공업 입사 초기, 저는 선배와 후배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불철주야 용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용접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회의감도 들었지만, 20여년간 쌓은 경험과 현장 노하우가 지금은 제관 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 동료 등 현대중공업 가족의 크나큰 사랑과 관심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는 제관품 검사 및 비파괴 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제작 장비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으로부터 현대건설기계의 장비가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듣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만한 결함과 사소한 불량도 완벽히 잡아 내 현대건설기계가 업계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99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하기 하루 전날, 저는 짐 가방 하나만을 달랑 들고 회사에서 지정해준 기숙사에 들어오면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및 기숙사 식당에서의 뜨끈한 한 끼 식사, 매일 입는 근무복까지 회사는 저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주었습니다.

또,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아파트도 사고, 두 아이의 아빠도 되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꾸리는데 많은 도움을 준 현대중공업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작년 8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현대글로벌서비스로 전직하였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선박 및 발전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세계 제1의 조선소인 것처럼 현대글로벌서비스도 세계 제1의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여 100년 기업으로 장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마운 회사, 100년의 장수기업 되길!



현대글로벌서비스 글로벌영업부
나기태 부장

초심(初心) 잃지 않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 공사팀
정영락 기원

무술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세 달이 되어갑니다.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연말 연초 공사업무로 현업에 집중하다 보면 벌써 한 살 더 먹은 나를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울산의 터줏대감 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창사 46주년을 맞은 것처럼 울산 출생인 저도 올해 만 46세가 됐습니다. 한 가정의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현대중공업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었던 나날에 감사 드립니다.

사업 분할 후 이제 저는 대구 현풍에서 현대로보틱스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뜨거운 열정과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현중인입니다!”

지난 1월초 입사한 108명의 현대중공업그룹 신입사원들이

그룹의 사업과 제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현대정신 체화를 통해 정에 현대맨으로 거듭나고 있다.

열정과 패기로 현대중공업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입사원들의 유쾌한 입문 교육 현장으로 가봤다.



그룹사 함께 현대정신 함양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현대중공업 32명, 현대일렉트릭 26명, 현대건설기계 8명 등 총 108명으로, 지난 1월 29일(월)부터 약 2주간 울산과 경주 등에서 그룹 공통 입문 교육을 받았다.

정식 입사 전 현대중공업 및 분할회사 소속의 신입사원들은 1월 8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인턴십을 받고, 오일뱅크 신입사원들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약 5주간의 자체 교육을 받은 만큼 부서 및 현업에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문 교육은 그룹 현황 및 발전전략, 현대정신 체화 등 그룹사를 소개하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시간이 확대 편성됐다. 현대중공업의 사업분할 후 각 사 주관으로 실시한 첫 대졸 공채인 만큼, 그룹의 가족으로서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또,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과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매너 등의 교양 수업도 병행하여 진행됐다.

입문 교육 첫 날인 1월 29일(월), 신입사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 야드를 견학하고 아산기념전시실을 방문해 전시실을 둘러보며 그룹사 제품 및 사업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인재교육원 창조관에서는 CEO 특강이 열려 현대중공업지주회사(가칭)의 대표이사 권오갑 부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먼저 권 부회장은 “능력 있는 인재들이 현대중공업그룹에 들어오





블로그 'hi,hi'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신입사원들이
직접 꾸민 입문교육 포스트를 만나보세요.



게 돼 기쁘다”며, “귀한 자녀를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 본관 로비에 설치한 창업자 흉상 앞에서 회사를 꼭 살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신입사원들도 가진 능력을 모두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각 회사의 성장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열정 가득 팀 퍼포먼스·봉사활동

입문 교육 마지막 날인 2월 9일(금)에는 경주현대호텔에서 197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구성된 연대기별 ‘팀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신입사원들은 사보와 뉴스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의 역사를 돌아보고, 인기 TV 프로그램 등의 재미요소를 더해 젊은 감각으로 유쾌한 무대를 만들었다.

1970년대 팀은 ‘창조적 예지’, ‘적극 의지’, ‘강인한 추진력’ 등 현대정신을 발휘하여 가상현실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을 그렸다. 또, 1980년대 팀은 급류로 인해 마무리 하기 힘들었던 천수만 물막이 공사를 폐유조선을 가라앉혀 완성한 ‘정주영 공법’을 회상형식으로 재구성해 감동을 전했다.

아울러 1990년대 팀은 IMF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다방면의 사업에서 활약했던 현대중공업의 성과를 재구성해 퍼포먼스 1등을 수상했다. 또, 2000년대 팀은 일본을 제치고 조선업계 1위로 우뚝서 수출 150억불 탑 수상하는 등 당시에 이룩한 성과를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하였고, 미래 팀은 통일 후 그룹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개발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상황을 그리기도 했다.

2주간의 입문 교육을 마치고 현대로보틱스 로봇시스템기술팀으로 배치 받은 서동민 사원(26세)은 “국내 산업용 로봇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로보틱스의 일원으로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돼 크게 설렌다”며, “현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부서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 신입사원들은 2월 1일(목)과 8일(목), 양일에 걸쳐 울산참사랑의집, 동구종합사회복지관, 태연재활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 지역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신입사원들은 텃밭을 정리하고 뒤편 야산에 흩어져있는 나무장작을 모으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는 한편, 식당, 목욕탕 등 시설을 청소하고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진행 보조로 나서는 등 현중인으로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성인지적장애인 시설인 울산참사랑의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이은지 연구원(26세, 중앙기술원 배치대기)은 “작은 도움으로 지역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신입사원 입문 교육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지도선배’가 전기간 동안 함께 교육을 받으며, 신입사원들의 멘토로서 활약해 눈길을 끌었다. 현대중공업 지도선배로 나선 김영민 대리(35세, 선제설계부)도 신입사원들과 봉사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김영민 대리는 “신입사원들을 만나 입문 활동을 함께하니 입사했던 당사가 떠올라 감회가 새롭다”며, “틈틈이 취미생활을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충실히 하여 후배들이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극저온용 탱크 국내 제작 통해 경쟁력 높여

현대미포조선이 니켈강 재질의 극저온용 카고탱크 제작을 위한 새로운 용접기술을 개발해 품질 제고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있어 전 세계 조선업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니켈강 용접

LEG운반선 카고탱크 국내 제작 방법 모색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인근의 한 사의 협력사에서 2만1천입방미터급 액화에틸렌(LEG)운반선에 탑재될 카고탱크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현대미포조선이 새로운 용접재료와 기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적용해 그 동안 비용 문제로 인해 중국에서 제작되어온 LEG운반선용 카고탱크를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

영하 104℃의 액화에틸렌가스(LEG)을 적재해야 하는 카고탱크는 저온에서 강재가 충격에 견딜 수 있도

록 특수 소재인 5% 니켈강이 주로 사용되는데, 강재의 특성에 맞춰 지금까지는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이나 피복아크용접(SMAW) 등 특수 용접기법들이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가스메탈아크용접은 전용용접장비가 필요하고 용접재료도 매우 고가라 타산이 맞지 않으며, 피복아크용접은 작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산 LEG 카고탱크는 생산 과정에 있어



▲ 용접 품질관리 및 검사 모습

적극적인 품질관리가 어렵고,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다. 또, 향후 선종 다각화를 위해서도 고부가가치 가스운반선의 핵심인 카고탱크의 국내 제작기술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니켈강 적용 가능한 범용 용접기법 개발

이에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용접기술팀 사우들은 지난해 5월부터 극저온용 카고탱크의 국내 제작을 위한 새로운 용접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 왔다. 특히 용접와이어 개선을 위해 약 8개월간 무려 60여차례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 사용된 용접시편만 약 120미터, 8.8톤에 달할 정도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개발 초기부터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플렉스코어드아크용접(FCAW) 기법에 CO₂ 보호가스 사용을 목표로 정했다. 또, 용접효율이 가장 뛰어난 일면 용접기법과 세라믹 백킹재(Ceramic Backing Material)를 사용하더라도 용접부에 별도로 흠을 파야 하는 가우징(Gouging) 작업 없이 5% 니켈강 용접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용접재료와 용접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이 밖에도 취부 및 용접 후 제거되는 모든 임시 피스류의 재질을 모재(母材)와 동일한 니켈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일반강으로 대체하여 세계 최초로 선급 승인까지 획득하였다.

새로운 검사 방법도 찾아내 선급승인 획득

한편, LEG 카고탱크는 국제가스추진선박기준(IGC CODE)에 따라 100% 방사선투과검사(RT)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를 통해 품질 및 안정성을 입증한다. 이에 방사선 피폭



▲ NDT품질보증과 사우들 PAUT검사

의 위험이나 긴 검사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왔다.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NDT품질보증과에서는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PAUT) 기법과 2차원 종파 탐촉자(2D Longitudinal Wave Probe) 등을 활용한 새로운 검사 방법으로 실증시험을 통해 DNV GL로부터 선급 승인을 획득했다.

특히 이 방법은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검사 시간도 대폭 단축한다. 무엇보다 판정요류를 현저히 줄임으로써 선급 검사관들을 크게 만족시켰다.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는 이번에 개발한 극저온용 카고탱크 용접기술을 지난해 3월 노르웨이 '솔방(SOLVANG ASA)'사에서 수주한 2만1천입방미터급 에틸렌운반선 4척의 건조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약 7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기술은 최근 그룹사에도 전수돼 극저온용 카고탱크는 이제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외 협력사에도 새로운 일감이 제공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용접기술팀 사우들



“한 팀서 2년 연속 학과 수석 배출!”

한 팀에서 끈끈한 동료애를 자랑하는 선·후배가 서로의 자기계발까지 돕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장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핵심 기술리더들을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대중공업공과대학(학장: 신현대 부사장)이 지난 2



왼쪽부터 이재형, 이성구 사우

월 22일 현대예술관 대공연장에서 ‘제4회 학위수여식’을 열고, 조선해양학과 22명, 기계전기학과 26명 등 총 48명의 졸업생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선행의장부 선행14팀 이재형 사우(32세)는 가족과 팀 동료의 축하를 받으며 졸업했다. 그는 지난 2년간 평점 4.38점을 기록, 조선해양학과 수석(전체 차석) 자리에 올랐다.

앞서 같은 팀인 이성구 사우(43세)가 지난해 2월 조선해양학과에서 전 학기 만점(4.5점)을 받고 졸업한 바 있어, 선행14팀은 2년 연속으로 학과 수석을 배출하는 진 기록을 세웠다.

이성구 사우는 공과대학 수석 졸업 외에도 2011년부터 용접, 배관, 에너지관리, 위험물, 금속재료 등 5개 기능장을 비롯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차례로 취득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2011년 입사한 이재형 사우는 이성구 사우의 남다른 자기계발을 몸소 지켜보며, 이성구 사우를 직장생활의 롤 모델로 삼고,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공과대학 입학 다짐했다고 한다.

이재형 사우는 지난 2년간 공과대학을 다니며 이성구 사우와 수업내용을 공유하며 함께 학습하고 주말마다 용접, 배관 등의 전문지식을 심층적으로 공부했다.

그는 “경험으로 알던 기술들을 원리까지 이해하며 직무전문성을 높게 됐는데, 앞으로도 배움을 이어가며 다재다능한 인재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사우는 이번 전문학사에 만족하지 않고, 벌써 용접기능장과 4년제

학사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동문생들은 최우수졸업생으로 현대로보틱스 품질경영팀 강재욱 기원(53세)을 뽑았다. 그는 대구 현대로보틱스 본사에서 울산 현대중공업공과대학까지 매일 왕복 300킬로미터를 오가며 단 한번 수업을 거르지 않았다.

강재욱 기원은 1남 2녀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자, 그토록 원했던 대학 공부를 시작했다. 2016년에는 로봇공장이 대구로 이전하여 학업을 멈출까도 고민했지만,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되고 싶어 학업을 끝까지 이어갔다고 한다.

그는 “먼 거리를 오가며 공부하기 힘들었지만, 팀과 회사에서 배려해준 덕분에 무사히 졸업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움의 행복 전파”

행복에 대한 깨달음을 책으로 발간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나누고 있는 사우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에 근무 중인 손덕화 사우다.

손 사우는 최근 동료 강사들과 함께 ‘스타강사들의 2018년도 대중강의’라는 책

을 집필했다. 제목 그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강사들의 핵심 강연을 모아냈다.

손 사우는 이 책에서 ‘행복의 배움은 평생교육의 문안에, ‘웃음은 보약이다’ 등 2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은 쾌락으로서의 행복, 상태로서의 행복, 활동으로서의 행복 등 저마다 개념은 다르지만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고, 평생교육을 통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학습자에게 인간, 사회, 세계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도록 요청한다. 이를 통해 교육받은 사람들은 지적 몰입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또, 손덕화 사우는 항상 웃으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웃을 수 없는지, 왜 자꾸 화가 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행복의 상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5월의 화창한 날씨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타들어가는 눈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농부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미포조선 손덕화 사우

이처럼 우리들이 웃거나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마음에 달렸다’면서, 마음만 바꾸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불안과 우울함에 얽매어 사는 일도 없고, 그저 매일 매일이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손덕화 사우는 행복에 대한 깨달음을 삶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마음껏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유년 시절의 아픔을 떠올리며,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나섰다.

사회로부터 소외 받은 학생들을 가르쳐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고, 직업 교육을 통한 자립도 돕고 있다.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아는 손덕화 사위의 ‘아름다운 나눔’이 계속되길 기대해본다.





선박의 수명을 좌우하는 세심한 ‘도장’ “우리가 책임집니다!”

‘입춘’이 훌쩍 지났지만 야드에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어떤 날은 하얀 입김이 폴폴 나오고, 어떤 날은 봄날같은 따뜻한 햇살로 얼었던 몸이 나른하게 녹는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 도장2부 도장1팀은 제멋대로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열정과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도장2부 도장1팀은
팀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무재해 2배수를 기록했다.
조회시간마다 '안전 구호'를 외치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는 '2인 1조'로 작업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한다.



안전과 품질, 한 번에 잡는다

도장1팀 15명의 팀원들은 선박이 바닷물에 산화되어 부식되지 않도록 선체에 코팅막을 씌우는 도장 작업을 담당한다. 선박이 탑재되기 전, 선체 외판에 오염된 반목재 부위 등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으로 도장1팀의 업무가 시작된다.

블록이 탑재된 후, 건조2부의 용접 검사가 끝나면 도장1팀이 도장 전 철판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블라스팅(Blasting) 작업을 한다. 이는 철판에 붙은 녹을 제거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도료의 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업자가 고소차를 타고 최고 40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수작업으로 해당 부위를 연마하다 보니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왔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장1팀은 현대삼호중공업 방식기술팀 및 외부 기관과 3년간 연구한 끝에 '자동 블라스팅 장비'를 개발하였다.

이는 선체의 수직, 수평, 경사면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블라스팅 장비로, 작업부에 보호 커버가 설치돼 있어 연마재와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고, 원격조정이 가능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장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날씨,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블라스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선체 외판의 도장 작업이 시작된다. 팀원들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Gun)을 사용하여 탱커선은 약 4~5회, 컨테이너선은 약 6~7회 반복하여 페인트를 칠한다.

이때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선박이 부식될 수도 있기에 팀원들은 정교하게 작업을 해나간다. 그러나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 변화무쌍한 날씨와 환경보호 규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월, 현대삼호중공업이 위치한 전남 지역에 유래 없는 폭설로 선박 건조가 지연될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도장1팀은 회사 내에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장비(AWS)를 이용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선박을 진수할 수 있었다.

또한 도장1팀은 작업 중 많은 양의 도료 분진이 공기 중으로 비산돼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야기하고, 도막의 부착력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장에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집진기(集塵機)를 40여대 설치하여 쾌적한 작업장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비교적 작업자 수가 적은 야간에 블라스팅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주간에 작업이 이뤄질 경우, 선박 주변에 밀폐 장비를 설치하여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소통으로 쌓은 최고의 팀워크

한편, 도장1팀은 팀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안전의식을 갖추고, 무재해 2배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조회시간마다 '안전 구호'를 외치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는 '2인 1조'로 작업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이들은 뛰어난 팀워크로 사내 제안왕에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무역의 날 산업자원부장관상을, 2017년 전라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우수상과 대통령상, 전라남도 으뜸 장인상 등을 수상하며 팀의 위상을 드높였다.

최광민(51세)팀장은 "좋은 팀원들을 만난 것도 행운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았다"며, "팀원 모두가 합심하여 받은 상이어서 더없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장1팀은 끈끈한 팀워크의 비결이 바로 단합 행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년 모든 팀원의 가족들이 모여 신년 행사를 즐기고, 생일 축하파티도 함께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팀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한편, 요즘에는 팀원들의 '건강 챙기기 운동'이 한참이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안마기를 구입하고, 어깨에 무리가 덜 가는 치공구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도장1팀이 '선봉 1팀'에서 '막강 1팀'으로 별명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이 기세를 몰아 2018년에는 뭐든지 잘해내는 '만능 1팀'으로 불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당신을 위한 로봇(Robot for you)을 만듭니다!”

현대로보틱스 로봇시스템기술팀은 신규 전략사업인 시스템사업의 육성을 위해 적응기술조직을 주축으로 제어 기술조직이 힘을 합쳐 구성되었고, 지난해 7월 적응기술팀에서 로봇시스템기술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다.

팀 구성 이후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로봇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스템사업 부문이 신설돼 공장자동화팀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 자동화 컨설팅 및 로봇자동화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로봇 자동화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I 팀장 인사말



▲ 최인갑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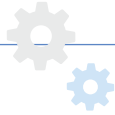
현대로보틱스 로봇시스템기술팀은 고객에게 최적의 로봇 자동화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핵심 기술인 산업용 로봇 관련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기는 하나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최근에는 제철·제선라인 자동화, 식품공장 물류 자동화, 자동차 공장 실링 자동화, 전자 산업용 가공라인 자동화, 조선소 용 블록 용접 자동화 관련 시스템 공사를 실행 중입니다.

특히 현대로보틱스의 로봇관리시스템(HRMS/Hyundai Robot Management System)은 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설비 고장 진단 및 예방 보전 시스템, 특화된 오프라인 시뮬레이션(Offline Simulation) 개발 및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처음 접해보는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로봇 자동화의 최전방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팀 업무 소개

제어기술 파트

로봇을 적용한 자동화시스템의 제어 업무를 담당합니다. 계약 전 기술 사양 검토에서 공사 대응 및 응용 기술 적용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과 주변 자동화설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최적의 효율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 HRMS 및 2D, 2.5D, 3D 비전 시스템 등 당사의 로봇 응용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 등 국내외 산업현장으로 영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로봇 응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하고, 최적의 로봇 자동화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 팀원 모두 개인 능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차체기술 파트

국내의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공급 협력사에 차체 용접라인용 로봇과 주변 설비에 대한 사양 및 기술 검토 업무를 수행합니다. 풍부한 차체라인 적용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요구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공정시뮬레이션(OLP/Off Line Program)을 통해 현장 설치 전 기능 구현 시간(CT/Cycle Time) 및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 현장에서의 공수를 절감하고,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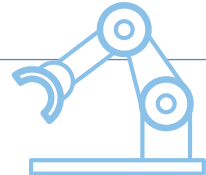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로봇 부가축 서보 건(Gun)을 적용한 알루미늄 차체 용접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동차 제작사가 추진하는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 테스트 중이지만 조만간 상품화가 예정돼 있어 선진 기술의 선점,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시스템기술 파트

자동차 차체 공장을 제외한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자동화 구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작업 라인을 자동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처음부터 설계를 하는 등 로봇 시뮬레이션 작업을 주로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엔진·변속기 물류자동화, 도장공장 실링, 조선·건설장비 후판용접, 프레스 라인, 팔레타이징(Palletizing)을 넘어서 전자공장 부품 핸들링용 갠트리(Gantry) 로봇시스템, 차체 도장 및 식품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시뮬레이터(HRSpace)를 활용해 로봇의 접근성 및 내구성, C/T 분석, 주변 설비 간섭 여부 등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과 시운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 주목, 이 사람!



2017년 현대 로봇인상 수상에 빛나는 박정용 사우는 업무도, 취미 활동도 정열적으로 합니다.

작년 2월 대구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 대구 달성문화원에서 틈틈이 사물놀이를 배운 박 사우는 여러 공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구를 치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공연을 통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1석2조의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는 박 사우는 동료들에게도 사물놀이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 신입사원 한마디



▲ 서동민 사원

저는 대학시절 여러 전시회를 참석하며 생각보다 많은 생산공정을 로봇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로봇을 개발하는 일원이 되고 싶었고, 그 꿈을 펼치고자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로보틱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을 벗어나 직장인으로서의 첫 출발은 저에게 큰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로봇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전 속에서 유의미한 성공과 실패를 맛보며, 부서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저희 부부는 동갑이라 취미 생활을 종종 공유합니다. 특히 '세계 일주'가 최종 목표인 만큼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편입니다. 매년 겨울에는 스노보드를 함께 타러 가고, 봄과 가을에는 전국에 있는 멋진 산을 찾아 다니며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름철 함께 즐길 만한 취미 생활을 찾아보던 저희 부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다에 들어가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보다가 상의 끝에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왕 시작하기로 했으니

스쿠버 다이빙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하고, 휴가를 이용해 세부로 떠났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다이빙 업체에 등록했는데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은 여러 단계로 나뉘져 있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입문 자격증이라고도 하는 오픈 워터(Open Water)는 수심 18미터까지 잠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 단계인 어드밴스(Advance)는 30미터까지 수심 한계가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여러 단계의 자격증이 있었지만 저희는 일단 어드밴스까지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 생활' 도전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단절된 대화의 창구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연결 고리가 된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때로는 공감하며 일상에서 작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오재명 대리(건조2부)와 김아진 대리(전장선실설계부)가 새로운 취미 활동에 폭 빠져있다.



스쿠버 다이빙, 바닷속 신세계를 열다!

먼저 이론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워낙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라 저희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론 교육과 더불어 바다에 들어가 직접 교육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치 제 집인 냥 바닷속이 편안한 모습으로 헤엄치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비염이 있어 이퀄라이징(Equalizing, 입수 후 수압에 고막이 상하지 않도록 코를 막고 호흡하는 것) 기술이 잘 되지 않아, 물 속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 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물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바닷속을 살펴본 저는 이곳이 상상 이상으로 멋져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크기나 종류가 제 각각인 물고기들과 예쁜 색깔의 산호초 등 푸른 바닷속은 저희 부부에게는 신세계였고, 스쿠버 다이빙 배우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며칠간의 교육 과정을 끝으로 오픈워터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다음인 어드밴스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시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픈워터는 기본적인 스킬 중심이지만 어드밴스는 더 깊은 바다 속으로 잠수해야 해 시험이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쉽게도 어드밴스 시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도전 2번 만에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습니다.

함께여서 더 의미 있는 시간

자격증 취득 후, 자신감이 붙은 저희 부부는 호기롭게 난파선 탐험을 떠났습니다. 종종 황금을 가득 싣고 침몰한 해저 보물선이 발견되어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 체험은 난파된 배를 다이빙 하며 탐험하는 것이기에 дай버들이 가장 흥미롭게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모리셔스(Mauritius)에서 다이빙을 계획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곳에서 난파선을 탐험한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설렘, 그 기대만큼 멋진 탐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맛벌이 부부인 저희는 취미를 공유함으로써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니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많아지고, 함께 하는 추억들이 속속들이 생겨나네요.

만약 이번 스쿠버다이빙도 혼자 도전했다면 흥미를 느끼지 못했거나, 도전을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하니 더욱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취미 활동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지쳐있는 부부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사우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을 대비하여 부부가 함께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해 보길 추천합니다.



블로그 'hi,hhi'가 오재명·김아진 사우 부부와 함께 푸른 바닷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허철기 대표이사

고품질 기자재 생산으로 조선 불황 넘는다!

현대중공업그룹과 함께 명품 기자재 제작을 통해 조선업계 불황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가 있다.

선박 추진 장치 등을 연결하는 모듈 유닛(Module Unit), 공작실(Work Shop) 기계 등을 제작하는 (주)영광공작소는 1978년 현대중공업그룹과 첫 인연을 맺은 뒤 2007년, 2013년, 2016년 등 3차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납기 · 품질 최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사업영역 다각화로 '강소기업' 자리매김

(주)영광공작소(대표: 허철기)는 1962년 대구에서 드릴, 그라인더 등 기계 제조업으로 시작했다. 1978년 현대중공업과의 거래를 시작으로 조선업으로 발을 넓혀 모듈 유닛과 장비 유닛(Skid Unit)을 제작했다. 1999년 경주 외동과 2004년 울산 온산에 공장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본사도 온산으로 이전했다.

2003년부터는 플랜트 부문에도 진출했으며, 품질과 생산력을 인정받아 유닛 제작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맞춰 2004년 온산공장을 신축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블록 제작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등 내실과 외실을 굳건히 다졌다. 그 결과 (주)영광공작소는 지난해 천만 불 수출탑을 달성하는 등 8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대형 히터

(주)영광공작소

위치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공단로 190

설립연도 1962년 7월 29일

임직원수 73명 (2016년 기준)

매출액 484억 (2016년 기준)



▲ Exhaust Gas Module 펌프 유닛

(주)영광공작소의 사업영역은 크게 3개의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선박 및 육상플랜트의 펌프와 쿨러 등을 연결하는 모듈 유닛, 가스선 카고 탱크 액화 처리 장비 유닛의 설계·조립·테스트·도장을 담당하는 유닛 부문이 있다.

다음으로 육상플랜트의 대형 히터(Heater) 및 압력용기를 제작·설치하는 플랜트 부문 그리고 엔진룸의 각종 장비들을 수리하는 공작실용 드릴, 그라인딩 머신, 선반 등을 제작하는 기계 부문으로 나뉜다.

국산화·자체 제작·일체화 공정으로 '경쟁력' 확보

한편, (주)영광공작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꾸준한 기술 개발 및 공정 개선에 있다. 장비 유닛의 특성상 세밀한 정도를 요구하는 작업의 경우, 대부분 배관을 외부에서 제작해 들어온다. 하지만 이 회사는 외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배관 제작 공장을 갖춰 공기를 단축한 것은 물론, 품질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이 곳은 대형 플랫폼 및 블록, 구조물들의 제작·도장·의장 작업을 별도의 물류 이동 없이 한 곳에서 가능한 일체화 공정을 갖추고 있다. 표준화된 작업이라도 끊임없이 공정을 개선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는 철저한 납기 준수를 가능케 해 (주)영광공작소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었다.

더불어 (주)영광공작소는 자체 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여러 연구소 EPC회사들과 함께 다양한 모듈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국산화하여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납기·품질 최우수, '40년의 신뢰'

(주)영광공작소와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연은 올해로 40년째다. 지난해 (주)영광공작소가 거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나온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주)영광공작소는 2007년과 2013년에 현대미포조선의 '납기·품질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고, 현재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하는 LPG운반선 재액화 설비(Reliquefaction) 장비 유닛의 전량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기, 품질 최우수 업체'의 영예를 안았고, 이에 앞서 2013년에는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1억 달성 기념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허철기 대표는 "조선·해양플랜트의 부활을 위해 시스템 모듈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에 주력하겠다"며,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현대중공업그룹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전했다.



▲ LPG 재액화 설비 장비 유닛



▲ 압력용기

제2화

비상! ‘끈대주의보’ 발령! “난 아닐끈대~?”

비상!
‘끈대주의보’ 발령!

국어사전의 의미 개정이 시급하다. 끈대라는 단어는 더 이상 본래의 사전적 의미처럼 기성세대나 학교 선생님을 비꼬아 부르는 말이 아니다. 우리 주변, 가깝게는 사무실 칸막이 바로 너머에서 열심히 보고서를 쓰고 있는 나이 어린 직장 동료도 무시무시한 끈대일 수 있다. 나이로 서열을 정리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막 대하는 선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사회 정의라 우기는 후배,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상사, 요즘 애들은 깡다구가 없다며 혀를 차는 어른들… 정말이지 우리는 참 많은 끈대 속에서 살고 있다.

유형별 끈대 알아보기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재직 중인 회사에 끈대가 있다고 밝혔다. (추측컨대 대답을 달리 한 1명은 본인이 끈대일 가능성이 높다.) 지역도, 업종도, 규모도 다른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출몰하는 끈대는 모두 같은 모습의 사람일까? 아

니다. 코감기, 목감기, 몸살감기 등 감기에도 종류가 있듯 끈대 또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나는 아닐끈대~?’ 라고 자신하고 있다면 우측의 유형별 끈대를 살펴봄여 혹시 그 속에 내가 있는 건 아닌지 조심조심 살펴보자.

구(舊) 끈대보다 무서운 신(新) 끈대

‘끈대=기성세대’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끈대계의 신진사대부가 있으니, 바로 ‘젊은 끈대’다. 이들은 경험이 적고 전문이 좁은 만큼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수평적이어야 할 집단에 수직적 질서를 설정한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톨스토이는 소설 ‘악마’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노년층이 매우 보수적이고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결코 공정하거나 옳지 못하다. 통상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은 바로 젊은 계층이다.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늘 보아오던 삶의 방식을 자기 삶의 전형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젊은 끈대들이 무서운 이유는 직장 내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을 고착화 시키는 것은 물론, 동료들을 협력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기성세대의 경우 유교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군대문화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왔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존중 받아온 젊은 끈대들은 사내의 수직적인 질서가 자신의 희생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힘들고 불편한 일을 후배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 후배간의 계급의 벽을 쌓는다. 선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렵고 책임져야 하는 일은 선배의 몫이지, 내 일이 아니며 내 일이면 안 된다.

그렇게 세워진 선·후배간의 벽은 시나브로 소통의 결핍과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낳는다.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하는 것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조직의 평화를 위해 주류층의 입맛에 나를 맞춰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직장문화이며, 그 수직적인 문화가 끈대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나와 내 선배, 그리고 후배를 위해 그 문화를 바꾸길 원한다면, 혹은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틀렸을 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라는 것.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끈대일거라고 단정 짓지 말자. 그 역시도 끈대 같은 생각이다. 우리가 끈대라 부르는 이들에게도 분명 청춘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청춘인 당신 역시 언젠가는 또 다른 이름의 끈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 말하지 말고 듣자! 답하지 말고 묻자!

유형별 끈대 알아보기



응답하라 1988형

가장 전형적인 끈대로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 방식을 고집해 이를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는 유형이다.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로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내가 막내였을 때는’ 등이 있다.



스파크스형

최신 아이돌의 이름을 외우고, 신조어를 사용하는 등 아랫사람과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직원들이 가장 꺼려하는 퇴근 반개급모임이나 휴일 등산을 강요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오지라퍼형

동료들의 사생활, 특히 결혼과 연애, 출산에 관심이 많으며, 이상형과 가족계획 등 인생의 목표를 대신 설정해 주기도 한다. 종종 무례함과 다정함을 구분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행보관형

“오늘 회식 예의 없이 전원 참석!”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형

주로 본인에게겐 너그럽지만, 타인에게겐 엄격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내가 한 실수는 발전을 위한 학습의 과정이지만, 동료의 잘못된 목인할 수 없는 중범죄로 여겨 아낌없는 정신교육을 선사한다.



블로그 ‘hi,hi!’에서 직장인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新 직장인 생활백서’를 연재합니다

아픈 역사 겹겹이 품은 고향의 꽃

학성공원 울산동백축제

주소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

문의 052) 290-4423



꽃피는 계절, 봄이 오니 여기저기에서 봄소식을 알리는 꽃 축제가 한창이다. 천편일률적인 축제보다 우리 고장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학성공원 울산동백축제’를 찾아보면 어떨까!

학성공원은 ‘학이 노닐던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울산 최초의 시민공원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글픈 우리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학성공원은 1597년 발발한 정유재란 당시 왜군들이 자신들의 요새를 삼아 울산읍성과 병영성의 돌을 허물어 쌓은 왜성을 터로 하고 있다. 왜군의 장수인 가토 기요마사가 설계하고 일본군들에 의해 축조된 성이라는 이유로 1997년 국가 사적에서 제외되고, 울산시 문화재 자료 제7호로 격하되기도 했다.

한편, 이곳에는 흰색, 붉은색, 연분홍색, 진홍색, 분홍색의 다섯 빛깔이 마치 물감이 번지는 여덟 겹의 꽃잎의 ‘울산동백’이 피어난다. 오색팔중(五色八重)이라 불리는 이 희귀 품종은 마찬가지로 왜란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가토 기요마사에게 약탈되어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일본 교토 지장원(地藏院)이라는 절에 심어진 이 꽃을 어느 민간단체가 발견해 오랫동안 반환운동을 추진하게 된 결과,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울산동백이 고향인 학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약 400년만에 고향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학성공원이 있는 울산 중구에서는 울산동백을 구화로 지정하여 개화시기인 3월말에서 4월초에 울산동백축제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중구지역 내 여러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여 동백비누와 방향제 만들기, 동백꽃 차, 솜사탕 등 울산동백을 테마로 하는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또, 오색불빛 점등식과 레이저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끈다.

이렇듯 역사와 문화가 만나 이루어낸 지역특화 축제 ‘학성공원 울산동백축제’에서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울산동백을 반갑게 환영하고 그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보면 좋겠다.

보통의 동백처럼 꽃잎이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겹겹이 쌓인 여덟 개의 꽃잎이 한 장 한 장 훑날리면서 다시 피어날 봄을 기약하는 울산동백의 아련한 그리움을 가슴 속에 담아보면서 말이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울산 시민들의 쉼터인 태화강에서 대규모 정원박람회가 열린다.

울산시는 오는 4월 13일(금)부터 21일(토)까지 태화강대공원 일원에서 '태화강의 역사, 문화, 생태'를 주제로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초청작가 프로그램, 시민 참여 프로그램, 특별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태화강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향긋한 봄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초청작가의 정원 3곳을 비롯해 공모작가와 시민,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정원 64곳이 조성된다.

특히, 일본의 이시하라 카즈유키(Ishihara Kazuyuki), 영국의 소피 워커(Sophie Walker), 프랑스의 카트린 모스박(Catherine Mosbach)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원·조경작가들의 참여가 결정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서 6년 연속 금메달을 따낸 이시하라 카즈유키는 일본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통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가드닝 매지션(정원의 마술사)'라는 칭송을 받은 작가다.

소피 워커는 영국 햄터코트 플라워 쇼와 첼시 플라워 쇼의 최연소 은메달 수상자이며, 카트린 모스박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정원을 설계하며, 2015년 세계 건축축제에서 수상한 바 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족 화분 만들기, 상상 정원 만들기, 스탬프 투어 등이 진행되며, 울산 록 페스티벌과 행사 기간 중 MBC 창사 50주년 기념 음악회 등도 개최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을 전망이다.

꽃과 가족, 문화와 음악이 함께 하는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통해 찬란한 올해의 봄을 만끽해보자!



태화강에 펼쳐지는 꽃 정원

태화강대공원 정원박람회

주소 울산 중구 내오산로 87

기간 4월 13일(금) ~ 21일(토)

울산 '태화강'

'울산을 관통하는 푸른 강' 태화강은 지난 1960년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다. 태화강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울산시와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의 맑고 푸른 물을 회복할 수 있었다.

현재 태화강에는 연어, 황어, 은어 등 73종의 어류가 살고 있으며, 원앙, 고니,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로 보호 중인 다양한 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또, 전국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 겨울이면 갈까마귀, 떼까마귀가 찾아와 화려한 군무를 펼치기도 한다.





럭셔리한 자연인, 글램핑장으로 떠나자!

답답한 도시를 떠나 뜻자리 한 장 들고 자연 속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노라면 건넌편 산 능선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가 이제 일어서야 할 시간임을 알려준다. 더 지체하다 보면 먹을 일, 씻을 일, 잠잘 일 모두가 녹록지 않기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바짓가랑이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낸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글램핑(Glamping)이라는 시설이 울산 인근에도 많이 생겨나 더 편리하게 자연 속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글램핑은 고급화(Glamor) 된 야영시설(Camping)을 의미하는 말로 무선인터넷, 침대, 가구, 생활가전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몸만 가면 되는 이른바 숲 속 호텔이다.

냉, 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어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깨어나는 봄에는 번거로움에 깊숙이 넣어뒀던 자연 속 낭만의 하룻밤을 꺼내어 보자.

깨끗한 새 건물, 불스글램핑장



불스글램핑장은 개장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모든 시설이 깨끗하고 신식으로 갖춰져 있다. 널찍한 내부구조에 수건, 로션 등 세면용품도 구비돼 있다.

글램핑장 내에 산양, 토끼, 기러기 등이 있는 동물체험장이 있어 동물에게 직접 먹이도 주고 관찰할 수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에도 좋다. 하루 전 예약하면 바비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간단한 조식 서비스와 연양터미널, KTX울산역을 오가는 픽업 서비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텐트는 인원에 따라 2~4인이 이용할 수 있는 디럭스부터 스위트, 로얄 등으로 구분돼 있고 바비큐시설, 족구장, 샤워장, 화장실 그리고 카페와 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주변관광지로는 신우목장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낙농체험이 가능하고, 신불산 역사평원, 박제상유적지, 울산암각화박물관 등이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SNS 이벤트를 수시로 실시하여 바비큐 세트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도 챙겨보자.

주소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아미산로길 26-50

홈페이지 www.bullsglamping.com

문의 010-8677-9711



캠핑월드는 2015년 정식 허가 등록된 업체로, 면적은 2천평 규모다.

글램핑 5개, 버스 글램핑 2개 외에도 오토캠핑장 35개면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편의시설로 샤워장, 화장실, 식기세척장, 정자 등이 갖춰져 있다.

이 곳은 앞으로 가지산, 뒤편으로 고현산, 인근에는 능동산이 보이는 영남 알프스 자락에 위치하여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큰 나무 그늘이 많고 야영장 양 옆으로 사계절 마르지 않는 능동천이 흐르고 있다.

능동천은 1급수의 하천으로, 피라미, 다슬기 등 많은 수생식물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능동천에 발을 담그고 다슬기 등을 잡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도 어른들도 자연과 더욱 친해지는 기회가 된다.

여름에는 대형 튜브로 된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주변에 대곡박물관과 대곡댐이 위치해 있다.

양 옆으로 능동천이 흐르는 숲, 캠핑월드



주소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삼재로 169-5

홈페이지 <http://campingworld365.com/>

문의 052)254-7777

스카이 글램핑장은 토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 된 시설이라 깨끗하며, 야외 럭셔리 스위트룸으로 불리는 '카바나' 텐트가 총 18동 설치되어 있다.

각 동은 방 1개와 데크 테라스로 이뤄져 있으며, 원목침대와 냉·난방기구, 조리기구 등이 마련되어 있다.

삼겹살과 대하 그리고 무한리필 되는 쌈 채소 등으로 구성된 바비큐 세트도 판매한다. 산 속이라 주위에 불빛이 전혀 없어 별을 관측하기도 좋으며 전망대에 올라가 전경을 감상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수영장 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고, 봄이면 주변이 온통 토함산 벚꽃이 만발하여 운치를 더한다. 경주시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고 여행자보험 및 화재 보험이 적용된다. 주변에 맛집이 많고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골프장이 10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별 아래 스위트룸, 스카이 글램핑



주소 경북 경주시 보불로 328-10

홈페이지 <http://skyglamping.co.kr>

문의 010-4099-0282

별빛마루 글램핑장은 텐트가 서로 마주보는 구조의 일반 글램핑 10동과 일렬로 배치된 럭셔리 글램핑 8동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동에는 침대와 로우체어, 식기건조대와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었고, 럭셔리 동에는 휴침대와 해먹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를 위한 트램펄린과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고 보드게임도 대여 가능하다. 바비큐장이 몽골텐트로 되어 있어 추운 날 이용하기에 좋다. 관리실 내에 매점에서 기본적인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튜브 수영장이 설치된다.

주변에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지인 도투락목장이 있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다. 대신 가볍게 오르기 좋은 등산로와 광활한 평원 그리고 운곡서원, 양동마을, 보문관광단지 등이 가깝고 이 일대 천북이 한우의 고장으로 불리는 만큼 주변에 화산불고기단지가 있어 먹거리도 풍부하다.

온 가족 함께, 별빛마루 글램핑장



주소 경북 경주시 천북면 새터힐링길 1-75

홈페이지 www.starrymaru.com

문의 054)774-5353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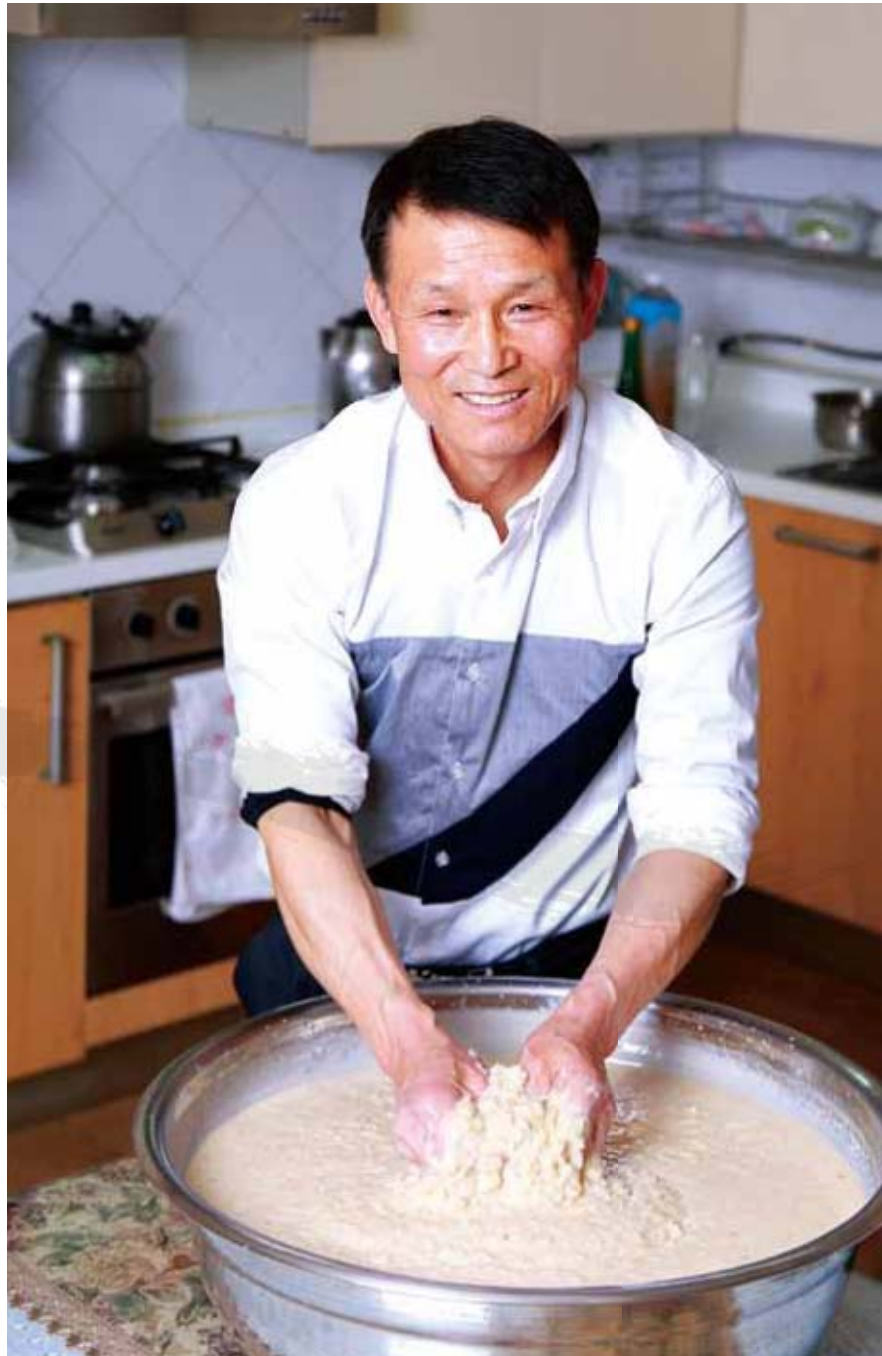
건강 지키는 발효의 미학

데우기만 하면 즉석 완성되는 레토르트(Retort)나 패스트 푸드(Fast Food)는 빠르게 변화하는 삶의 속도를 맞추기엔 편리하지만 음식을 통해 나누는 건강한 삶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슬로우 푸드는 오랜 기간 더해지는 정성 어린 시간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슬로우 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은 발효식품으로 술과 식초를 꼽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이십여 년을 노력한 사우가 있어 그의 느린 삶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현대인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김유식 기장(61세)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사는 집에는 약초향이 은은하게 배여 있었다. 삼대 째 이어온 한약방처럼 갖가지 건초가 어우러진 은은한 자연의 향기가.

오랜 시간 정성을 담아야 비로소 만나는 이양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이 빠른 속도를 지향한다. 통신, 교통수단 등 우린 어느새 느린 것들을 참지 못하고 느낌은 마치 발전에 걸림돌인 양 변화에 맞는 속도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서둘렀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서서히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 휴식 같은 삶인 힐링(Healing), 편안하고 기분 좋은 삶을 즐기는 휘게(Hygge)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지시하며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건강과 휴식, 편안함이 주는 삶 속에 숨어있는 공통분모는 바로 슬로우 푸드(Slow Food)다.

배양이를 할 때, 몸살기운이 느껴질 때, 온 몸에 기운이 다 빠져 나간 듯 무거울 때도 다양한 발효액들이 가득 찬 그의 집은 예전 한약방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온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 가장인 셈.

김유식 사우는 20년 전부터 한마음 회관과 대송문화회관에서 효소 만드는 것을 배워 산과 들을 다니며 많은 약초 공부를 해왔다. 1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백야초를 만들었고 전통주는 3년 전부터 빚기 시작했다.

다양한 발효법을 공부하면서 제대로 된 식초를 만들어 보고 싶은 열망이 생겼고, 그것이 전통주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 설명한다. 식초와 전통주는 오랜 시간을 두고 정성을 보태야 좋은 음료가 된다는 사실이 님었다.

30일의 정성으로 빚는 이양주

흔히 전통주라 하면 막걸리라고 생각하지만 전통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막걸리라 부르는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다. 김유식 사위가 자신 있게 그리고 자주 빚는 전통주는 이양주다.

알코올의 발효란 곡물이나 과일 등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과 탄산가스가 발생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당이 높을수록 알코올 도수는 높아진다. 도수를 높이기 위해 당을 더하기도 하지만 좋은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가당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막걸리인 단양주는 고두밥과 물, 누룩을 버무려 20~25℃ 온도를 유지하며 14일 동안 발효하면 완성된다. 이양

주와 삼양주는 단양주에 한 단계씩 과정이 더해져 완성되는데, 술 맛 또한 더해진 과정만큼 깊어진다고 한다.

이양주를 만나기 위해선 최소한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30일 동안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유산균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좋은 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양주는 쌀과 물, 누룩을 넣어 30일간 정도 효모를 증식시켜 밀술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밀술 발효가 끝나면 찹쌀로 고두밥을 지어 쌀알 하나하나를 풀어 밀술에 섞은 후 14일에서 20일 정도 발효 시키면 완성된다.

위에 뜬 맑은 물은 정종이고 가라앉은 곡물을 꼭 짜서 거른 물이 이양주다. 꼭 짠 술지게미를 시중에 파는 막걸리에 담아 5일 정도 발효를 시키면 깊어진 단양주를 맛볼 수 있다.

“전통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래 전부터 시작된 생활주이기도 하지요. 말로 풀어 설명하면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인터넷 등에서 흔히 떠도는 레시피(Recipe)로 제대로 된 술을 만나는 어려워요.”



물맛과 온도의 세심한 차이 그리고 멸균의 정도에 따라 술 맛이 달라진다. 많이 만들어 보고 실패를 해보면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술 맛을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좋은 술이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담아야 만날 수 있는 셈이다. 술이 맛있게 익으며 그렇게 김유식 기장의 삶도 익어간다.

취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가정에서 이양주 만들기

❶ 밀술 준비하기(재료: 맷쌀 1kg, 물 5L, 누룩 500g, 밀가루 150g)

쌀을 100번 씻는다는 생각으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 3시간 이상 담가둔 후 물기를 빼가루로 만든다. 물 5L를 끓여 쌀가루에 부어 익반죽한다. 차게 식힌 후 밀가루와 누룩을 섞어 발효시킨다. 1일 1회 저어준다.

❷ 30시간의 발효가 끝난 밀술에 찹쌀 4kg로 고두밥을 지어 명물 없이 풀어준다.

❸ 20~25℃의 실내온도에서 14일에서 20일 정도 발효가 끝나면 완성.

※ 모든 과정에서 멸균은 술 맛을 좌우한다. 모든 기구를 끓는 물에 소독하고 손 역시 알코올로 소독한다. 또, 발효과정에서 공기구멍을 내줘야 공기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약

연꽃빛

밥상 위의

긴 겨울을 견뎌낸 미나리가 제철을 맞았다.
 미나리는 향이 뛰어나며 부드러운 식감으로 잃어버린 입맛도 찾게 한다.
 북극 한파를 견뎌낸 봄 미나리의 아삭한 맛을 즐겨보자.

울산 미나리는 조선시대 왕실 진상품

미나리는 약간의 습지 환경이면 잘 자라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어릴 적 봄채소로는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무친 미나리만한 게 없었다. 흔한 반찬으로 맛있는 줄도 모르고 먹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자연산 보약인데, 그때는 상 위를 떠나지 않는 미나리가 지겹기만 했었다.

미나리 중에서도 우리 고장에서 나는 울산 미나리는 조선시대 왕실 진상품으로도 유명했다고 한다. 향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고, 철과 마그

네슘, 무기질, 비타민C 등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다. 알칼리성 식품인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춰준다. 피로 해소 및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북극한파로 미나리가 얼지 않을까 걱정하는 농부의 발놀림이 분주하다. 한파는 미나리 생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 밤에는 따뜻한 지하수를 대주고 낮에는 물을 빼내 미나리가 얼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자연 상태로 재배한다.

또, 올해처럼 강한 추위에는 온풍기와 열 전등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고 비닐 하우스 밖은 방한 덮개로 덮어 미나리를 보호했다고 한다.

미나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다. 베고 다듬어서 깨끗한 지하수에 씻고, 세척하고, 포장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우리의 밥상에 올라온다.

찰떡궁합 ‘미나리+삼겹살’

울산에서는 여러 곳에서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향긋한 맛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선바위미나리를 소개한다. 이 곳은 40동의 하우스에서 시차를 두고 미나리를 키우고 있다.

하우스 미나리는 2월에서 4월까지가 제철인데, 속이 통통하게 차고 식감이 연해서 생으로 먹어도 좋다. 단, 생으로 먹는 미나리는 초벌 미나리다. 일 년에 한 번으로 그 맛을 다하는 것이다. 하우스 안에는 파릇파릇 몸단장을 마친 미나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곳은 근처에 미나리와 환상궁합인 삼겹살을 함께 구워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마련돼 있다. 불판부터 집게, 가위 등을 제공하는 기본 상차림에 고기 한 근 1만7천원, 미나리 한 단 1만원 등 4인 가족 기준 5만원선이면 맛있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미나리 줄기를 손으로 돌돌 말아서 노릇노릇하게 구운 삼겹살에 마늘과 쌈장을 올려 한입 먹으면, 삼겹살의 느끼함을 잡아줘 환상적인 맛을 자랑한다. 부드럽고 아삭한 것은 물론 향이 좋아 미식가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부산 다대포에서 미나리가 먹고 싶어 달려왔다는 김대인 씨(62세)는 “이제 미나리 아니면 오겠어요. 고기야 어디라도 다 있지만 미나리는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어 봄이 가기 전에 꼭 챙겨 먹어요”라고 말했다.

분주한 식당에 파릇파릇 미나리들이 봄 향기를 날리며 날아다닌다. 입맛 없는 봄, 제철 미나리에 삼겹살 하나 올려 봄을 머금어 보자. 잃었던 기력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울산 곳곳, 향긋한 미나리를 맛보다



울산 언양은 돌미나리로 유명하다. 언양읍성 안에 돌미나리 밭이 있는데, 3월이면 푸른 잔디를 깔아 놓은

듯 연둣빛의 세계가 펼쳐진다.

언양 돌미나리는 태화강 지류인 남천의 맑은 물을 머금고 있는 지하 130미터의 청정수와 따뜻한 햇살을 받고 노지에서 재배된다. 미나리밭 주변 노점에서는 할머니들이 직접 생산한 미나리를 한 단에 6천원 가량이면 구입할 수 있다.

또, 울산 화봉동 화동못수변공원 앞에도 미나리를 판매하는 하우스가 있다. 무릉산의 정기를 받은 갓 나온 미나리를 등산객들이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정겹다.

울산 선바위 미나리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73
문의 052-211-0880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포항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주소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3

관람료 무료

문의 054)270-2883

거북바위 타고 떠난 ‘연오랑세오녀’ 설화 모티브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는 삼국유사에 기록돼 전해지는 설화를 바탕으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공원이다. 2만5천평의 부지에 야외시설이 조성돼 재작년 7월 28일부터 부분 개장하여 운영 중이다.

공원 중앙에 위치한 전시관인 ‘귀비고’는 3월말 개장을 목표로 한창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귀비고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천890제곱미터 규모로, 연오랑세오

녀 부부가 일본에 전파한 신라시대의 철기문화, 포스코 철강 산업문화, 포항 역사 전시물들을 보존할 계획이다. 또, 5D상영관을 비롯하여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원 입구 연오랑뜰 광장의 벽면 타일에는 연오랑세오녀의 설화가 6개로 나뉘어 그려져 있다.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 어린이 방문객뿐만 아니라 처음 설화를 접한 어른들도 이해하기 쉽다.

설화의 내용은 신라 제8대 아달라왕 4년(157년)에 동해 해변에 살던 연

영일만이 한 눈에! 새롭게 떠오르는 포항의 명소

‘포항’하면 새천년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호미곶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영일만의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을 품은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를 다녀왔다면, 이제 이곳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귀비도조감도

오랑세오녀 부부가 거북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된 뒤 신라의 해와 달이 사라져 버린다. 이에 놀란 사람들이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간직하고 국보로 삼았는데, 창고의 이름을 귀비고(貴妃庫)라 한다.

현대적으로는 당시 연오랑세오녀 부부가 가진 신라의 제철기술과 비단 등 직조기술이 뛰어나 일본 지역의 군주로 추대 받았을 만큼 존경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 포항은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를 계승하겠다는 목표로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를 건축했다고 전한다.

한편, 테마파크가 위치한 곳은 산지 지형에 바다를 끼고 반달모양으로 들어간 영일만의 정중앙으로, 공원 전체가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다. 공원 어디에서든 탁 트인 동해와 포항 시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해질녘이면 기암절벽 사이로 넘어가는 석양이 아름답고, 해가 지면 철강회사 포스코의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다.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테마파크를 찾은 김정희 씨(포항 상도동, 44세)는 “이곳에 세 번째 방문했다”며, “어두운 시각 공원을 밝히는 알록달록한 조명이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느긋한 걸음으로 거닐면, 저절로 ‘휴식’

연오랑플 광장에서 중앙 전시관으로 향하는 산책로 왼쪽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을 재현한 한국들이, 오른쪽에는 일본식 정자와 연못이 이국적인 일본들이 인공폭포와 어우러져 운치를 더한다.

또, 철의 도시 포항답게 철예술들에는 철로 만든 첨성대와 도자기 등 철제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다. 철기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철예술들 앞으로는 신라시대 바닷가 마을을 재현해 놓은 세트장이 있다. 철을 녹이는 가마를 재현한 대장간과 연오댁, 세오댁, 도기야댁이라는 초가 3채가 영일만을 향하고 있다. 부잣집에 딸린 공간, 작은방과 부엌까지 구경할 수 있어 마치 작은 민속촌을 방문한 듯하다.

‘들어가지 마세요’가 아닌 ‘신발을 벗고 올라가세요’란 표지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초가 뒤편에 걸터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높낮이가 평탄한 공원의 아래쪽으로 사방을 바라 볼 수 있도록 높게 지은 전통누각 ‘일월대가, 위쪽으로는 나무로 만든 배모양의 큼직한 ‘나루섬터’가 멋진 풍경과 함께 휴식을 선사한다.

꽃샘추위가 지나면 공원의 잔디와 나무들이 온통 초록으로 물들고 곳곳의 봄꽃들도 만발할 것 같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 인공연못이 채워지고, 안벽의 폭포수도 힘차게 떨어져 더욱 아늑한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사랑살랑 부는 봄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 갈 곳을 찾고 있다면, 가까운 포항의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천천히 느끼게 거닐어 보길 바란다.

취재 정은주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트

함께 둘러보면 좋아요!



테마파크를 충분히 즐기고도 아쉬운 분들께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을 추천한다.

연오랑세오녀의 터전인 청림 일월(도기야)을 출발점으로 호미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동해면 도구해변, 선바우길, 구룡소를 거쳐 호미곶 해맞이광장까지 총 25킬로미터 길이의 4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코스는 연오랑세오녀길, 제2코스는 선바우길, 3코스는 구룡소길, 4코스는 호미길이다. 해안선을 따라 기암절벽과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노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 같다.

계곡 따라 봄을 느끼며 걷다!

양산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작년 말까지 2년여에 걸쳐 조성한 배내천 트레킹 코스가 올해 1월 점검을 마치고, 봄맞이 나들이객을 맞이하고 있다.

배내천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과 양산시 원동면에 걸쳐서 흐르는 계곡으로, 트레킹 코스는 배내골이 위치한 태봉마을에서 양산시 원동면 풍호마을 고점교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이다.

코스를 다 도는 데는 편도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산길, 마을길, 임산도로, 계곡길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1코스에서 4코스까지 걷는 이의 체력과 시간과 취향에 따라 길이 나눠져 있고, 걷는 내내 배내천이 따라다녀 봄 맞이 산책하기에 제격이다.

영남알프스가 보이는 **1코스** (태봉마을~장선마을 1.63킬로미터)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시작하는 1코스는 마을과 인접한 산길을 걷는다. 트레킹 길에서 마을을 내려다 보고 영남알프스를 올려다보며 자연의 냄새를 흠과 나무에서 맡을 수 있다는 점이 1코스의 매력이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냇가도 서서히 퍼지는 봄 기운에 새들에게 목을 쳐줄 공간들을 점점 넓히고 있다. 맑은 개울 옆으로 야생 배나무가 많이 자란다 하여 배내골이라 한다는 말도 전해온다. 제법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2코스로 진입한다.



계곡이 깊고 맑은 통도골의 **2코스** (장선마을~대리마을 4.65킬로미터)

장선마을을 지나 산길로 오르니 깊은 계곡에서 흘러내린 크고 작은 물줄기가 아직 얼어있다. 고드름이 된 것도 있지만 얼음 아래는 이미 졸졸졸 봄이 흐르고 있다. 통도골에서 올라다 본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높다. 하늘을 향해 높이 뻗은 가지마다 햇살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

통도골로 한참을 올라가니, 2001년 개봉영화였던 '달마야 놀자'의 촬영지인 선녀탕이 있다. 지난 겨울의 산속 추위가 가늠이 될 정도로 꽁꽁 얼은 선녀탕은 사람이 올라서도 미동이 없다. 하지만 가장자리 돌 틈 사이로 미약하게나마 흐르는 물소리가 들린다.

길 양 옆엔 나무명찰이 달려있다. 숨을 고르는 박자 삼아, 길 옆의 나무를 만진다. 까칠까칠, 울퉁불퉁, 세로로 선이 나있는 나무가 손바닥을 간질인다. 줄지어 이어진 노각나무 군락지가 다음 코스를 안내한다.



겨울 갈대와 배내천의 썰매놀이에 신이 난 **3코스** (대리마을~풍호마을 2.4킬로미터)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입고 나온 얼룩덜룩 군복무늬 노각나무는 어느새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 껍질이 벗겨졌다. 떨어졌다는 반복하며 배내골을 지키고 있다.

노각나무 군락지를 지나니 푸른 잎사귀도 없는 겨울나무의 가지뿐인데 낙엽길이 나타난다. 떨어진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바람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서 발길마다 푹푹 빠진다. 가을이 다시 온 듯한 착각에 낭만이 밀려온다.

낙엽길에 푹 빠져 걷다 보니 하얗게 눈 내린 듯 얼은 배내천 옆으로 넓은 갈대밭이 나타났다. 갈대가 겨울 바람에 꺾이지도 않고 색깔만 바랜 채 어느새 석양에 물들었다. 원동 풍호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산책로에는 어느새 해가 녀녔녔 지고, 마을 굴뚝엔 하나 둘 연기가 피어 오른다.

- 마을길
- 트레킹길
- 임도
- 도로
- 진입로
- 교량
- 마을
- 주요지점
- 장터길방향



연리지의 대궐집나무가 인상적인 **4코스** (풍호마을~고정교 1.09킬로미터)

4코스에서는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맞닿아서 결이 서로 통한다는 연리지를 보며, 소통의 위대함을 느껴본다. 한참을 신기한 듯 둘러보다가 마침내 고정교를 지나는데, 막상 주차를 해놓은 출발지까지 다시 갈 길이 멀다.

한적한 시골이라 배차 간격이 긴 버스를 기다리기가 멈칫 거려진다. 버스를 포기하고 걸어가는데, 운 좋게도 배내골 등산객을 태워준 적 있다는 중년부부의 인심 덕에 태봉마을 출발지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트레킹 길 곳곳에 안내판, 전망데크, 데크로드, 벤치, 포토

존 등이 있는 반면,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은 불편함이 있다.

도로 갓길로 지나온 배내천 트레킹 길을 보니, 산 밑 마을 뒷동산 같은 산책길이다. 씩씩 겨울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몸집 큰 높은 산이 바람을 막아주니 기분이 상쾌해진다.

‘반석 위에 옥류(玉流)를 감상할 수 있는 배내천’이란 문구가 말해주듯, 배내천 트레킹 길에서는 깊은 계곡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머지않아 찾아올 봄 손님, 개울가 버들강아지, 파릇파릇 새순, 진달래와 들꽃을 만나러 발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 바야흐로 배내천이 건기를 사랑하는 이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아름다운 일곱 빛깔의 무지개가 뜨기를...



넉넉지 않은 살림에 줄줄이 태어난 아이들. 그래도 부부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살아왔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해지는 삶의 무게가 한없이 버겁기만 하다.
캄캄한 터널에 갇혀있는 듯 답답한 현실에서 이들은 언제쯤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



청각장애 남편 대신 생계전선에 뛰어든 아내

조용한 주택가에 왁자지껄한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온다.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준비를 하는 장남부터 아직 아기 티가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막내까지 칠 남매를 둔 유연옥 씨(50세)의 보금자리에서 나는 소리다.

결혼 후부터 줄곧 동구 방어동에서만 자리잡고 살아온 유연옥 씨 가족은 2년 전 지금 살고 있는 빌라로 이사 왔다. 방

세 칸짜리 집이지만, 아홉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비좁은 공간이다. 그래도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라 당분간은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우선은 안심이다.

청각장애 3급의 남편 이성덕 씨(50세)는 한 때 작지만 본인의 가게를 꾸려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일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는 일들이 매번 운이 닿지 못했고, 결국 일이 어그러지면서 주저앉고 말았다.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최근에는 심한 이명 현상에 시달리다 보니 번번이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딱한 사정을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지금은 김천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아홉 식구를 책임지기엔 별이가 시원찮다.

그런 남편을 대신해 뒤늦게 생계전선에 뛰어든 유연옥 씨는 노인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치매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간혹 심한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정년 6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란다.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아픈 일곱 손가락’

말이는 말이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또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처럼 7남매 모두가 부부에게는 하나같이 소중한 자녀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섯째와 여섯째 쌍둥이 자매는 부부에게는 특히나 아픈 손가락이다.

8개월만에 세상에 나온 쌍둥이들은 어려서부터 또래에 비해 조금 뒤쳐졌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발달 속도가 느리다고만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정신과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들 자매가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임을 알게 되었다.

ADHD는 어렸을 때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을 수 있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유연옥 씨네 경제적인 여건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몇 년 전 이웃집 아저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던 상처로 인해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던 아이들을 보며,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보복의 두려움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후회스러움에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한다.

한편, 대학교에 진학한 세 자녀들은 대견하게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생활의 무게에 눌러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 아이들 스스로 장학금 수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성적을 유지해줘 부부는 고마운 마음뿐이다.

중학생이 된 넷째는 공부를 아주 잘하지만 그 흔한 학원조차 보내주지 못해 미안하고,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막내에게는 형, 누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해서 미안하단다. 유연옥 씨는 부모라는 이름의 죄책감에 눈물을 비쳤다.

조심스레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을 여쭙어보았다. 하지만 유연옥 씨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힘이 부쳐 미래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한다.

꽃 피는 봄이 오면 유연옥 씨 가족의 꿈꿨던 언 추위도 녹여줄 수 있을까? 일곱 남매가 그러낼 찬란한 일곱 빛깔 무지개를 기대하면서 이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희망해본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도움계좌

농협 356-0264-4809-03 (예금주:유연옥)

이유 없이 갑자기 살찐다면? '비만 아닌 질환'

정현대 사우는 요즘 들어 살이 찌는 것 같아 운동을 시작하고 식사량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살은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이 점점 심하게 부어오르고 배는 튼살까지 나타날 정도로 비대해졌다.

살이 계속 찌는 이유가 궁금해 병원을 찾았더니, '쿠싱 증후군(Cushing syndrome)'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쿠싱 증후군이란 무엇입니까?

쿠싱 증후군은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부신이라는 내분비 기관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이 코르티솔이 필요 이상 많은 양이 생성되어 우리 몸에 노출될 때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쿠싱 증후군은 크게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외인성은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한 경우 발생하며, 내인성은 코르티솔 생성을 자극하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혹은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농도와 관계없이 부신에서 코르티솔을 많이 생성하여 발생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쿠싱 증후군의 증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중심성 비만입니다. 주로 얼굴, 목, 가슴과 복부 등에 지방이 축적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달덩이처럼 둥근 얼굴 모양을 보이고 목 뒤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불룩하게 솟아오릅니다.



반면 팔다리에는 살이 찌지 않고 때때로 심한 근육 위축을 보이기도 합니다. 피부가 얇아지면서 쉽게 멍이 들고, 복부나 허벅지 등에는 보랏빛의 틈살이 관찰됩니다.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기도 하고 피부 질환인 어루러기, 손발톱 무좀 등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여성의 경우 다모증, 여드름, 난소기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고혈압과 당뇨병, 골다공증 및 병적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증상도 동반되는데, 수면장애, 과민증, 심한 우울증, 정신병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제나 관절염약을 먹고도 쿠싱 증후군에 걸릴 수 있나요?

네. 그러나 모든 약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경구로 먹거나 근육 내 주사를 하거나, 흡입치료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용량으로 장기간 사용할수록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며 피부 크립이나 한약제, 강장식품, 관절주사, 신경주사 등등도 코르티솔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비만과 쿠싱 증후군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초기에는 단순한 비만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도 증상이 나타난 뒤 평균적으로 4~5년쯤 되어야 제대로 진단 및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성 비만이나 피부 변화와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꼭 한번쯤 이 질환을 의심해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치료하나요?

스테로이드 포함 약물을 과량 복용하여 쿠싱 증후군이 생긴 경우라면, 약물 복용을 서서히 줄이다가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부신 종양이 원인이고 수술로 제거가 가능하다면, 부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로 제거할 수가 없는 경우, 부신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시행기도 합니다.

뇌하수체 종양이 원인인 경우에도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은 종양은 80~90%, 거대선종은 약 50% 정도의 확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하거나 방사선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 성적은 수술에 비해서 다소 떨어집니다.

치료 후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나요?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호전되는 데에는 약 2~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질병 그리고 생식 능력과 성 기능은 뇌하수체 기능이 정상이었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정상 회복됩니다.

그러나 다른 2차적 질환들이 있다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골절이 생겼거나 골괴사(골세포 또는 골 조직이 죽어 있는 상태)가 있었다면 그것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쿠싱 증후군이 발생할 경우,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0%에 이를 만큼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늦게 치료를 하게 되면 병 자체는 낫더라도 혈관 합병증이 지속되어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혹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서 많은 양의 코르티솔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좀 더 큰 병원을 찾아 복부 CT나 뇌하수체 MRI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서울아산병원



뜨거운 눈물, 올림픽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7일간 여정을 끝으로 지난달 2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평창을 밝히던 성화는 꺼졌지만, 전 세계인들의 눈물과 환호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특히 태극 전사들이 만들어낸 감동의 장면들은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역대 최고 올림픽 찬사 이어져

지난달 8일 시작해 25일 막을 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7위(금메달 5, 은메달 8, 동메달 4)의 성적을 거뒀다.

당초 목표인 ‘8-4-6-4(금메달 8, 은메달 4, 동메달 6, 종합 4위)’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컬링,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등의 종목에서 메달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4년 후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시설과 운영 등에서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앞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축적됐기에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 자원봉사자 1만7천여명의 헌신과 노력도 이번 올림픽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이들의 노력은 이번 대회를 문화 올림픽으로 격상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이 자자하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폐회식에서 한국어로 직접 “자원봉사자 여러분 헌신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올림픽의 숨은 주역인 자원봉사자의 공을 치하하기도 했다.

땀과 열정으로 만든 감동과 환희

이번 올림픽은 기록을 떠나 감동이라는 측면에서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됐다. 7차레나 수술대에 오르기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쇼트트랙 1,500m 금메달을 획득한 임효준, 한국 설상 종목 첫 메달을 획득한 ‘배추보이’ 이상호, 동계올림픽 첫 단일 종목 3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한 ‘빙속여제’ 이상화, 북유럽의 전유물이라 생각됐던 썰매 종목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윤성빈 등 감동적인 스토리에 국민들은 함께 울고 웃었다.

특히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준결승전’에서 대역전극을 이룬 우리 대표팀의 일화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경기 초반 한 선수가 넘어져 예선 통과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뿐만 아니라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컬링 대표팀은 '영미 영미~ 헬!', '안경 선배' 등 유행어를 남기며 이번 올림픽에 가장 큰 인기를 모았다. 경북 의성 출신인 이들은 학창시절부터 맞춰온 호흡으로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하며 예선을 1위로 통과했지만, 스웨덴과 맞붙은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했다. 그러나 아시아 컬링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라는 큰 수확을 거뒀으며, 영국 로이터 통신, 독일 DPA 통신 등 세계인의 찬사가 이들에게 쏟아졌다.

한편, 메달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설상종목인 크로스컨트리 김 마그너스, 프리스타일 스키 김정은, 알파인 스키의 김동우, 정동현, 강영서, 김소희 등도 성공적으로 경기를 치르며 다음 올림픽을 위한 값진 경험을 얻었다.

이밖에도 남자 바이애슬론의 티모페이 랍신, 루지의 에일린 프리쉐, 피겨 아이스댄스 알렉산더 켄린 등의 '푸른 눈의 태극전사'인 귀화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이처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동안 빙상 종목에 가려져있던 스켈레톤, 봅슬레이, 컬링 등 비인기종목에도 국민의 관심이 제고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메달 획득 유무와 관계없이 선수들이 흘렸던 땀과 노력에 국민들이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는 등 스포츠 본연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발길 북적



울산과학기술대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가 2월 1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지로 사용됐다. 국제규격의 우수한 시설에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프랑스 피겨스케이팅 페어 국가대표인 바네사 제임스와 모건 시프레,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대표인 매 베레니스 메이트, 피겨 스케이팅남자 싱글 대표인 샤피 베세이까지 4명의 선수들은 이곳에서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며 훈련에 임해 동계올림픽에서도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다.

한편, 이곳은 체험학습 및 일일 입장 등 월 평균 이용객수가 1만여명에 이른다.

미니 인터뷰 울산과학대 김기훈 교수



강릉 선수촌장으로 활약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딴 울산과학대 스포츠지도학과 김기훈 교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장에 임명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메인 선수촌인 평창 선수촌에는 설상 종목과 썰매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머물고, 강릉 선수촌은 빙상 종목 선수들이 주로 지내는 곳이었다.

선수촌을 대표해 의전을 수행하는 자리인 선수촌장은 대회 기간에 열린 입촌식에서 각국 대표단과 선수촌 방문 귀빈을 환영하는 역할을 맡아 활동했다.

아울러 김기훈 교수는 강릉 선수촌장으로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관리에 힘을 쓰며 뜻 깊은 날들을 보냈다.

한편, 김기훈 교수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계주와 1,000m에서 정상에 오르며 2관왕을 차지했고,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는 남자 1,000m 금메달을 따낸 한국 쇼트트랙의 전설이다. 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올림픽이 잘 끝났는데?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린 올림픽으로 동계올림픽은 특정 종목에서만 메달을 땄었는데 이번에는 6개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획득하면서,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동계스포츠의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 같고, 선수촌장으로서 선수들을 보면서 많이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4년 후 베이징올림픽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각 종목들마다 올림픽이 끝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이를 잘 보완하면 4년 후에도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네요. 사실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 동계올림픽에는 비인기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는 컬링이나 스켈레톤 등 비인기종목에서도 메달을 땄는데요. 여러 단체에서 이 종목들에 지원을 해준다면, 더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빙상 등 인기종목 역시 다방면에서 연구를 해서 동계올림픽의 효자 종목으로 계속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유지·발전해야 합니다.

많은 응원을 보내준 우리 국민들과 사우들에게 감사의 한마디!

올림픽 준비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선수들이 국민들의 응원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국민의 성원을 가슴에 안고 땀 선수들의 경기와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가슴에도 큰 감동으로 각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과학대 교수가 강릉 선수촌장으로 가게 되면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많은 그룹의 가족들이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연안형 LNG생산설비’ 기본설계 수주

현대중공업은 최근 캐나다 스틸헤드LNG(Steelhead LNG)사로부터 AS-LNG(At-Shore LNG)〈조감도〉 27기의 선체(Hull)에 대한 기본설계(FEED) 및 건조(EPC) 계약자로 선정됐다.

ASLNG는 연근해상에 정박해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온 가스를 액화해 LNG를 생산, 수출할 수 있는 연안형 LNG생산설비다.

길이 340미터, 폭 60미터, 자체중량 7만4천톤에 이르는 이 설비는 최대 28만입방미터의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맡게 된 선체부분의 계약 금액은 5억불 규모로, 추후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계약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건조에 들어가게 된다.



나이지리아서 플랜트 설비 수주

현대중공업이 최근 나이지리아 당고테(Dangote)사로부터 ‘대형 LPG 저장 탱크(Bullet Tank)〈조감도〉 15기를 수주했다.

이 설비들은 각각 직경 8미터, 길이 95미터 규모로, 나이지리아 남서부의 정유·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하는 LPG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총 LPG 저장용량은 7만5천입방미터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들 설비를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당고테사로부터 중질유 분해설비(RFCC, Residue Fluid Catalytic Cracking Unit)를 수주한데 이어, 이번 후속 공사까지 수주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PG 이중연료엔진’ 사업 착수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는 1월 30일 영빈관에서 장기돈 엔진기계 사업대표, 덴마크 만 디젤&터보사 클라우스 엠버그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PG 이중연료엔진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이번 MOU에 따라 양사는 LPG와 디젤 두 가지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6천마력급 이상 대형선박 추진용 ‘LPG 이중연료엔진(ME-LGIP)’의 개발과 상용화에 협력한다.

엔진기계는 만사가 보유한 LPG추진 기술을 기반으로 이중연료엔진의 상세 설계와 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주요 선주사를 대상으로 신제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명절 맞아 성금·위문품 전달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는 2월 7일 설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울산 동구청에 5천2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사진〉

이날 기탁한 상품권은 불우이웃 9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27곳에 전달됐다.

또, 현대중공업은 사회복지시설 26곳과 경로당 46곳을 찾아 과일과 떡, 백미 등 2천10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자매부대인 육군 53사단 예하부대 5곳에 총 1천만원의 위문금을 전했다.

현대일렉트릭, 신축 헝가리기술센터 개소

현대일렉트릭은 2월 16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주영걸 대표와 현대보텍스 정기선 경영지원실장, 마칭코 졸탄 헝가리 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헝가리기술센터(H-TEC)' 개소식을 가졌다(사진). 총 760평(2천509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된 이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력제어 시험설비, 시제품 제작실 등 최신 연구시설을 갖추고 회전기, 고압차단기, 변압기, 전력제어 등 4개 연구팀이 근무한다. 현대일렉트릭은 헝가리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등에 필수적인 '전력변환'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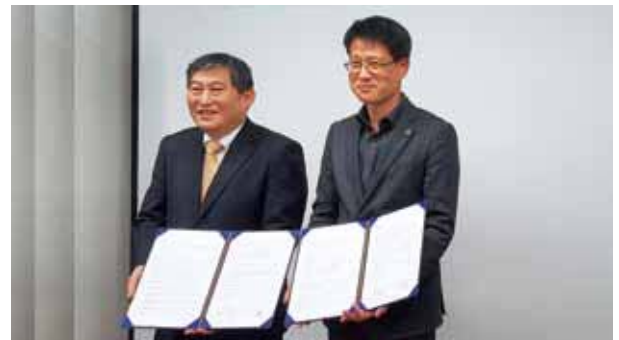


현대건설기계, 강소법인 생산능력 확대

현대건설기계가 최근 중국 강소(江蘇)법인에 굴삭기 조립라인을 증설했다(사진). 강소법인은 올해 중국 시장의 굴삭기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립라인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이번 조립라인 증설로 강소법인의 굴삭기 생산능력은 월 600여대에서 1천여대로 크게 증가했다. 증설한 조립라인에서는 6톤과 7.5톤 굴삭기를 주로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일렉트릭, 에너지 신산업 추진

현대일렉트릭이 최근 경기도 여주시, 동서발전과 '여주시 에너지 신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사진), 신재생 에너지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 사업은 여주시 남한강 일원의 자전거도로 2.5킬로미터 구간과 여주보 인근 산책로 3.2킬로미터 구간에 6.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패널을 지붕 형태로 설치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동시에 비와 햇빛을 막을 수 있다. 또 20.5메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조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기계, 금형 컨설팅 계약

현대건설기계가 1월 24일 분당 본사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금형(金型)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사진).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는 오는 12월까지 1년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정기적인 교류회를 갖고 신공법과 신기술 등을 공유하며, 공동 연구 활동을 통해 금형 기술력을 높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기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협력회사 직원들에게 금형 제작기술과 이용기술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며 부품 품질 수준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밸러스트 프리’ LNG병커링선 세계 첫 건조

현대미포조선이 지난해 11월부터 건조에 들어간 독일 ‘버나드슐테(Bernhard Schulte)’사의 7천5백입방미터급 LNG 병커링선(Bunkering Vessel)에 대해 ‘밸러스트 프리(Ballast Free)’라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고 있다.

‘밸러스트 프리’란 해양 생태계 교란의 주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선박 평형수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안전운항이 가능한 새로운 선박을 일컫는 개념이다.

특히 국제해사기구(MO)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의무설치 규정이 2017년 9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신개념 선박의 탄생은 전 세계 조선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리슬사 4만9천톤급 PC선 진수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월 9일 ‘이리슬(RISL)’사의 4만9천톤급 PC선 2653호선에 대한 진수식을 개최했다.

3도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란 ‘이리슬사’ 모하메드 사에이디(Dr. Mohammad Saedi) 회장을 비롯한 선급 관계자 등이 참석해 2653호선의 진수를 축하했다.

특히 사에이디 회장은 2653호선을 직접 둘러보며 우수한 품질에 만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선박은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16년 12월 ‘이리슬’사로부터 수주한 4만9천톤급 PC선 6척 중 2번째 선박으로, 길이 183미터, 너비 32.2미터, 높이 19.1미터의 제원을 갖추고 오는 5월 중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5%니켈강 적용 LEG선 강재절단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월 13일 선각1A공장에서 노르웨이 ‘솔방(SOLVANG)’사로부터 수주한 2만1천입방미터급 LEG운반선 1척에 대한 강재절단식을 가졌다.

높이 159.9미터, 너비 25.6미터, 높이 16.4미터의 제원을 갖추게 될 이 선박은 오는 7월부터 1도크에서 본격적인 블록조립에 들어가 2019년 1월경 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이 선박에 설치되는 5%니켈강 재질의 LEG 카고탱크는 현대미포조선이 세계 최초로 범용 플렉스 코어드(Flux-Cored) 아크용접 기법을 적용해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 제작됨으로써 품질제고와 비용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고망간강 적용 벌크선 인도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6일 신관 A회의실에서 5만톤급 고부가 벌크선인 선번 6156호에 대한 인도식을 가졌다.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17년 6월 ‘일신해운’사로부터 수주한 이 선박은 벌커C유와 LNG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Dual Fuel Engine)’이 장착됨으로써 선박 유해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고도 운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린 아이리스’호는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고망간강(High Manganese Steel)’ 재질의 LNG 연료탱크를 세계 최초로 탑재한 선박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조선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현대삼호중공업

15만7천톤급 원유운반선 동시 명명

현대삼호중공업은 벨기에 유로나브(EURONAV)사에서 수주한 15만7천톤급 원유운반선 2척(S909, S910)의 동시 명명식으로 올해 선박 명명식의 첫 타이프를 끊었다.

지난 2월 7일(수) 오전 남문안벽에서 열린 동시 명명식에는 윤문균 사장과 선주사의 칼 스티(Carl Steen)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선박의 새로운 탄생과 무사 운항을 기원했다.

S909는 'CAP QUEBEC(캡 퀘벡)'호로, S910은 'CAP PEMBROKE(캡 펴브록)'호로 각각 명명됐다.

한편, 선박은 길이 277미터, 폭 48미터, 깊이 23.1미터의 제원을 갖췄고, 시속 14.6노트(27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세월호 직립 공사 첫 고개 선체 이동 성공

현대삼호중공업은 세월호 직립 공사의 첫 고개인 선체 이동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1일, 선체 이동을 위해 운반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364척이 사용됐다. 모듈 트랜스포터는 시속 1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총 누적거리 1.5킬로미터를 이동해 길이 148미터 무게 8천400톤인 세월호 선체를 목포신항 안벽 수직 방향에서 수평 방향으로 재배치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선체 내외부의 보강 작업을 거친 후, 5월 말까지 선체 직립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17만4천입방미터급 LNG선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이 올 들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 천연가스선(LNG선)을 수주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일본 선사인 NYK와 17만4천입방미터급 LNG선 1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선박(S970)은 올 12월 건조에 들어가 2020년 4월에 인도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은 가스분사식 이중연료추진엔진(X-DF)를 탑재했고, 'GTT 마크 III' 멤브레인형 화물창이 적용됐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이 일본 선사에서 LNG선을 수주한 것은 13년 만이다. 2005년 일본 MOL사에서 17만7천입방미터급 LNG선을 최초로 수주한 바 있다.



설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 전달

현대삼호중공업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며 따뜻한 명절을 만드는 데 힘썼다.

윤문균 사장은 지난 2월 9일 노동조합 손형림 지회장 등과 함께 목포 성덕원을 방문해 이경숙 원장 등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했다.

2월 5일부터는 영암과 목포 등 전남 서남권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30곳과 소외이웃에 온누리 상품권과 쌀을 전달했다. 설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군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해군3함대사령부에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308억원의 자재대금을 약 일주일가량 앞당겨 설날 전에 지급했다.

아산나눔재단

비영리기관 지원 협약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2월 1일 서울 엠배서더호텔에서 '파트너십 온 (Partnership ON) 협약식'을 개최했다.

2015년부터 운영된 파트너십 온은 아산나눔재단이 벤처 기부(Venture Philanthropy)를 통해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3년간 각 기관에게 연간 2억원의 사업비와 전문가 자문, 교육, 컨설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랑의 힘 △우리들의 눈 △디티에스행복들고나 △피치마켓 등 5개 비영리기관이 지원 받는다.

한편, 아산나눔재단은 이날 행사에서 파트너십 온 대상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울아산병원

12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병원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이 12년 연속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에 선정됐다고 2월 27일 밝혔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은 탁월한 의료성과와 사회공헌으로 의료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는 병원에게 주는 상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4개월간 산업계 임원 및 간부 7천440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230명, 일반 소비자 4천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아산병원은 △서비스의 질 △고객만족 △신뢰도 △인재교육 등의 항목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에 올랐다.

서울아산병원은 △고난도 수술 분야의 성과 △국경을 넘나드는 사회기여 활동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변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울산대학교병원

만성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기)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3차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3회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2월 8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6천4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년간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래 진료분을 평가한 결과, 울산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평균(88.96점)과 전체 평균(60.91점)보다 높은 89.64점을 기록하며 1등급을 받았다.

한편,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며 공기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까지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40세 이상 남자에게 많이 발생되며,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울산대학교

제45회 학위수여식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2월 9일 교내 체육관에서 졸업생들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울산대학교는 학사 2천346명, 석사 481명, 박사 89명 등 총 2천91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 가운데 평점 4.46점(만점 4.5점) 성적으로 졸업한 전기 전자공학전공 윤슬빈 씨(23세)가 영예의 이사장상을, 이외 10여명의 졸업생들이 각각 울산시장상과 울산시의장상, 총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울산과학대학교는 같은 날 동부캠퍼스 1대학관 대강당에서 '제44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전문학사 1천439명, 학사 139명 등 1천57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울산과학대학교

WCC사업 융합교육 컨퍼런스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가 2월 6일 호텔현대울산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사업 융합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울산과학대학교는 지난해 사업성과를 공유한 데 이어 △4차 산업혁명 따라잡기 △융합교육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례 △4차 산업혁명과 문화경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진입을 위한 과제 등을 주제로 초청강연과 토론회를 열고, 향후 지역 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교육부는 글로벌 직업교육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WCC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사업연도부터 지금까지 울산과학대학교를 WCC 지원대학으로 선정하고 있다.



현대힘스

ESS 발전사업 협약

현대힘스(대표: 오세광)가 2월 9일 울산 본사에서 ㈜솔라라이트와 '태양광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힘스는 ㈜솔라라이트와 전략적 동반자로서 오는 2022년까지 ESS시장을 공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양사는 기술 제휴와 공동 연구개발, 사업추진 등에 나서고, 각 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토대로 국내·외 ESS시장을 선점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힘스는 조선기자재 기업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해, 에너지 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인 최초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클래식 신예'

조성진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선우예권이 오는 4월 현대예술관을 찾는다.



그는 2017년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

승을 거머쥐었고, 2015년 독일의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2012년 미국 윌리엄 카펠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 연이어 국제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며 한국인 피아니스트 중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선우예권은 경력에 걸맞은 깨끗하면서도 폭발적인 연주로 매 공연마다 극찬을 받고 있다. 클래식계의 슈퍼스타답게 그가 작년 12월 진행한 한국 피아노 리사이틀은 연일 매진 사태를 낳으며 국내에서의 신드롬적 인기를 증명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 쿼터파이널 연주곡인 라벨의 '라 발스', 세미파이널 연주곡인 그레인저의 '사랑의 듀엣'을 포함해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작품들까지 두루 선보일 예정이다.

편안한 감정으로 음악 본연의 것을 추구하는 그의 연주 속에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진면목을 들여다보자.

선우예권 (Yekwon Sunwoo)

-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수석입학 및 명예졸업, 커티스 음악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
- 줄리어드 대학원·메네스 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졸업, 독일 하노버 국립 음대 연주자 과정 중
- 4장의 솔로 음반 발매,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 앨범>(2017)으로 빌보드 전통 클래식 앨범 차트 1위 등극
- **입상경력** 2017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15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2014 방돔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 2013 선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2012 피아노 캠퍼스 국제 콩쿠르 외 다수 입상



관람정보

일시 4월 9일(월) 저녁 8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고향에서 하는 발레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천상의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뜻의 예천미지(藝天美地)를 추구하며 발레를 통해 많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민간 직업 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이 ‘지젤’이라는 작품으로 오는 4월 현대예술관을 찾는다.

그런데 이번 무대에서 군무를 뜻하는 ‘코르 드 발레(Corps De Ballet)’에 참여하는 발레리나 가운데 사우자녀인 배현경 씨(배종만 부장 자녀, 현대중공업 노사협력실)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배현경 씨는 여섯 살 무렵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있는 미포회관 발레 강좌를 들으며 취미로 발레를 즐기다가 중 2때 전공을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발레리나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학창시절 국내의 굵직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발레에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많은 무용학도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세종대학교에 입학하며 기량을 쌓았다.

이후 2014년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하여 지금까지 ‘백조의 호수’, ‘로미오와 줄리엣’, ‘오네긴’, ‘심청’ 등의 유명 작품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배현경 씨는 타지에서 “매끼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게 쉽지 않고, 외롭지만 공연을 하나씩 끝내고 나면 보람이 느껴진다”며,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향인 울산의 현대예술관 무대에서 공연하는 꿈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지만 막상 가는 날을 앞두고 있으니 좋으면서도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욱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는 그녀. 이번 작품에서는 지젤이 남자 주인공의 배신을 알고 미쳐가는 매드센(1막)과 윌리엄의 단체군무(2막)를 눈 여겨보라고 추천한다.

한편, 배종만 부장은 열심히 노력해준 딸에게 “고맙



고 미안하다”며 현경 씨를 격려했다. 그녀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애절한 마음을 전했다.

오는 4월, 우리 사우 가족이 참여하는 꿈의 무대 ‘지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용수가 담아내는 슬프고도 로맨틱한 사랑의 노래를 들어보자.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공연정보

일시 4월 20일(금) 저녁 8시,
21일(토) 오후 3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인류에게 평화를!” 극한 액션의 진검 승부가 열린다

툼 레이더 (Tomb Raider)

장르 액션, 모험

개봉일 2018년 3월 8일 (목)

감독 로아 우다우그

출연 알리시아 비칸데르,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윌튼 고긴스, 도미니크 웨스트, 오언조 등

줄거리 자유분방하고 활동적인 여대생 '라라 크로프트'는 7년 전 실종된 탐험가인 아버지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우연히 아버지가 남긴 미스터리한 단서를 발견한 라라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굶은 모험을 떠나는데... 숨겨진 퍼즐을 풀어나갈수록 그녀의 전사적 본능이 깨어난다!

볼거리 TOP3

- 01 여전사 등장! 가장 성공한 여주인공, 강인한 여전사 '라라'의 귀환
- 02 화려한 액션! 격투, 수중 액션, 사격 등 모든 액션을 직접 소화
- 03 모험의 정석! 다채로운 모험의 요소로 풀어가는 재미 UP!

※ 예매 및 문의 : 현대예술관 (www.hhiarts.co.kr / 1522-3331)

친절한 리뷰

'툼 레이더'는 1996년 첫 등장 이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켜 온 어드벤처 게임으로, 2015년 '라이즈 오브 더 톼 레이더'까지 다양한 게임 시리즈들이 만들어졌다.

게임을 원작 삼아 2001년 영화 '툼 레이더'가 개봉했고, 당시 안젤리나 졸리가 여주인공 라라 크로프트 역을 소화하며 할리우드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곧 개봉을 앞둔 2018년 리부트 작품에서는 영화 '대니쉬 걸'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새로운 라라로 등장해 기대를 모은다. 지적이면서도 강인한 매력의 라라 크로프트를 극장에서 만나보자.



새로 개봉하는 따끈한 신작 영화를
블로그 'hi,hhi'와 현대예술관에서 만나보세요.



퍼시픽 림: 업라이징

장르 액션, 모험, SF

개봉일 2018년 3월 22일 (목)

감독 스티븐 S. 드나이트

출연 존 보에가, 스콧 이스트우드, 케일리 스페니, 아드리아 아르조나 등

줄거리 전세계를 초토화시킨 전쟁 이후 지구 종말의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 더욱 강렬하게 진화한 적들의 공격이 인류의 재앙을 불러오고, 최정예 파일럿과 업그레이드된 거대 로봇 '예거' 군단은 반격을 시작한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적의 등장으로 인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끝나지 않는 전쟁, 진화하는 적에 맞서 싸워라!

볼거리 TOP3

01 흥행 시리즈! 전편보다 더 강력해져 돌아온 '퍼시픽 림'의 후속작

02 최첨단 액션! 역대급 스케일, 최정예 로봇 군단의 화려한 액션

03 해운대 촬영! 부산 로케이션부터 UN 출신 배우 김정훈의 출연까지

※ 예매 및 문의 : 현대예술관 (www.hhiarts.co.kr / 1522-3331)



친절한 리뷰

외계 괴물 '카이주'에 대적하는 메가톤급 초대형 로봇 '예거'와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의 전투를 그린 <퍼시픽 림>(2013)의 후속작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전작의 영웅 '스태커 팬테코스트'의 아들 '제이크'가 새로운 예거 군단의 리더로 등장, 히어로의 세대교체를 예고하며 화제를 낳고 있다.

새로운 파일럿에 맞게 진화된 예거 군단은 최첨단 기술력과 고난도의 전투 스킬로 전투의 웅장함을 더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기다려 온 흥행 시리즈의 귀환! 올 봄, '퍼시픽 림: 업라이징'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5년 차 장수 인기 강좌의 비밀”

한국의 대중가요를 K-Pop(Korean Pop)이라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대중음악을 즐기기 시작한 후부터 이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K-Pop의 특징은 단순하고 경쾌한 리듬감,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 아이돌 가수들의 멋진 군무인데 서구의 팝보다 시각적 즐거움이 크다.

한마음회관에서는 이러한 K-Pop 댄스를 주제로 5년간이나 강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 강좌가 매년 정원수가 가득 찰 만큼 꾸준히 인기가 있다고 한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귀에 익은 신나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강의실을 찾아가 보았다.

매주 한 곡씩, K-Pop 커버댄스

하나, 둘 구령에 맞춰 10분 정도 가벼운 몸풀기 스트레칭 후 춤을 쉽게 배우는 방법과 실력을 키우는 수업으로 포인트 안무와 실용댄스를 배운다.

일주일에 한 곡씩 여가수 노래와 남가수 노래를 번갈아 가며 매주 새로운 아이돌 노래로 수업을 진행한다. 한꺼번에 한 곡을 마스터 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업 부담이 적어 보인다.

바로 음악을 틀고 춤을 배우게 되면 박자가 너무 빨라 아무리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동작을 익히

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신해창 강사(41세)는 노래에 맞춰 천천히 음악에 동작을 입힌다. 정확한 동작을 위해 느리게 노래를 부르며 동작을 설명하기에 몸치라도 차근차근 익힐 수 있을 것 같다.

손가락 동작 하나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는 신해창 강사의 친절함이 돋보인다. 동작의 포인트를 짚어주는 강사를 따라 수강생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며 동작을 따라 한다. 연습을 거듭하고, 점차 속도를 높이면 한 곡의 군무가 완성된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날은 새로운 곡을 선정하여 이틀째 수업하는 날이었다. 수강생들은 지난번 수업 때 배운 동작을 음악에 맞춰 연습하고, 새로운 동작을 이어서 배우고 있었다.

춤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모인 이들 인 만큼 대단한 춤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누구에게 선보일 장기자랑을 연습하는 것도 아니란다. 그러기에 안무가 틀려도 괜찮고, 어설피도 괜찮단다.

실제로 수강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한 가득 피었다. 하고자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을 즐기니까 하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속에서 편한 복장과 운동화, 춤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수업 준비가 끝이다.

신나게 흔들며, 흥과 끼를 무한 발산

여러 해 된 강좌이니만큼 5년 차 베테랑 수강생부터 6개월 차 주부 수강생 그리고 2개월 된 새내기까지 수강생 조합이 다양하다.

윤미정 씨는 강좌가 재미있어 보여 배우기 시작했는데 기대에 걸맞게 너무 재미있는 강좌라 6개월째 수강 중이라고 한다.

수강 2개월 차인 정명성 대리(현대중공

업 플랜트경영부, 34세)는 “K-Pop에 관심이 있어서 등록했는데, 강좌가 거듭될수록 더욱 흥미롭다”고 말했다.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강좌인 것 같다.

신 강사의 손 동작에 맞춰 수강생들의 독무대가 이어지면, 수강생들은 마치 무대 위에 오른 K-Pop 스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동작을 반복하여 익히다 보면, 수강생들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추운 겨울도 무색할 지경이다.

우수수 떨어지는 땀과 반대로 수강생들의 땀 실력은 쑥쑥 올라간다. 자연스레 다이어트도, 체력 향상도 되는 것 같다. “틀려도 괜찮아, 우린 아마추어니까~”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업에 수강생들이 흥에 겨워 신나는 비명을 지른다. 종일 회사 업무에, 가사에 차곡차곡 쌓였던 피로감이 빠른 비트의 음악과 함께 단숨에 날아간다.

그래서 5년이 된 이 강좌에는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춤을 추려는 수강생들로 북적이고, 강의실에는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하다.

취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K-Pop 댄스

장소 한마음회관 3층 무용실2

강의 시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40분~9시

수강료 5만5천원/1개월

문의 ☎ 052)209-7900

“사진으로 보는 울산현대 포토데이”

Photo Day

통패딩으로도 막기 힘든 겨울 돌풍

울산에 초속 5미터가 넘는 강풍이 분 것은 지난해 2월 9일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1년 여만에 위압적인 강풍이 찾아온 2월 4일, 울산현대 클럽하우스에는 본격적인 시즌 시작을 알리는 구단 포토데이가 예정되어 있었다.

바깥 날씨와 무관하게 클럽하우스는 포토데이(Photo Day) 행사를 위한 사전준비로 분주했고, 로비를 비롯한 클럽하우스 곳곳이 사진과 영상촬영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선수단 숙소가 있는 4층 로비에는 간이 미용실이 준비되어 선수들을 기다렸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오전 운동을 나갔던 선수들이 소리 소문 없이 돌아왔다. 본격적인 포토데이가 시작된 것이다.



은초루, 잘생겼다? 못생겼다?

선수들의 스타일링 방식은 가지각색이었다. 180도 이미지가 바뀐 선수도, 머리에 손 하나 대지 않은 선수도 있었다.

어느덧 지난해 전역 후 팀으로 복귀한 조영철의 차례가 되었다. 한창 스타일링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디선가 “영철 잘생겼다~”라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시즌 사건 도스에서 넘어온 토요다 요헤이의 목소리였다.

매일 한국어 교재를 끼고 산다는 주변인들의 말처럼 요헤이는 능청스레 한국어를 했다. 하지만 스타일링에는 관심 없는지 어느 순간 “잘생겼다”라는 목소리만 남긴 채 사라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뒤 로비로 들어선 울산 마형 김용대는 스타일링이 한창인 조영철을 보자마자 “진짜 못생겼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조영철을 두고 공격진과 수비진의 만형들은 상반된 평가를 했는데,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까?

울산현대 비공식(?) 스타일리스트, 리차드

스타일링 장소가 잠시 한산해진 사이 리차드가 등장했다. 스타일링을 제의하는 손길을 뿌리친 리차드는 헤어스프레이 하나만 든 채 셀프 스타일링을 시작했다. 그러다 머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엄지를 치켜세우고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러던 리차드는 멀찍이 서있던 주니오에게 장난을 칠 생각이 들었는지 주니오에게 직접 스타일링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마다하지 않고 자리에 앉은 주니오에게, 리차드는 이미 단정할 대로 단정한 주니오의 머리를 빗으로 쓸더니 마지막에는 헤어스프레이까지 화끈하게 뿌려 주었다.

주니오 역시 만족스러운 듯 리차드와 함께 자리를 비웠다. 옆에 서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 선수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두 선수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 보았다.

완벽한 한 컷을 위해 추위와 싸우다!

단체촬영을 위해 선수들은 클럽하우스 옆에 위치한 경기장으로 이동했다. 입구를 나서자마자 강한 바람이 좌우로 불며, 사정없이 뺨을 휘갈겼다.

선수들도 몸을 웅크린 채 종종 걸음으로 단체촬영을 위해 준비된 좌석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 분주히 움직였다.

저마다 자기 자리를 찾아 서고, 얼마 뒤 감독님까지 착석을 하자 잠시 대열을 정리한 사진작가가 신호를 주었다. 두툼한 롱패딩을 입고 있던 선수들 사

이에서 산발적인 비명이 튀어나왔다.

롱패딩을 입어도 추운 날씨에 반팔 반바지 유니폼을 입고, 멋지고 근엄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건 예상일이 아니었다.

단체사진 촬영은 채 3분 남짓한 시간 안에 끝났지만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맨몸에 가까운 상태로 있었던 선수들에게 3분은 마치 3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사진작가의 한 마디에 환호의 비명이 선수단에서 일제히 터져 나왔다. 일단 옷을 걸치는데 급급했던 선수들은 자기의 옷인지 확인하지 않고 다른 선수의 패딩을 입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주머니에서 다른 이의 휴대폰을 찾기도 하고, 한참 동안 자기 옷을 찾지 못한 선수는 추위 속에서 초조해하기도 했다.

야외 촬영이 모두 끝나자, 선수들은 한결 여유 넘치는 표정으로 남은 촬영에 임했다. 클럽하우스 밖에는 여전히 돌풍이 불어 닥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울산현대는 K리그를 집어삼킬 돌풍의 주인공으로서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이날의 바람은 울산현대의 ‘공격 축구’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2018시즌 울산현대축구단의 포토타이가 막을 내렸다.

글 울산현대축구단 프렌즈 **어마루**,
사진 **OverSense**, 울산현대축구단 프렌즈
김예은, 어마루



"진짜보다 좋다!" 아주 멋진 가짜

이제 소비자는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기보다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에 집중한다.
무엇이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멋진
라이프스타일과 소비문화를 이끌어 내느냐가
핵심이 된다. 진짜도 멋지지 않으면
가짜에 뒤처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진짜 vs 가짜

가짜라는 말은 대체로 거짓, 사기, 모조품, 가식 등의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제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 가짜는 진짜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독립성을 갖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소비 트렌드를 '클래시 페이크(Classy Fake: 아주 멋진 가짜, 격이 다른 가짜)'라 일컫는다.

가짜 모피를 천연 모피라고 속이던 시절이 있었다. 진짜라고 해야 제품이 팔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가죽을 가짜라고 속여 판 일이 있었다. 2013년 미국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진짜 가죽으로 만든 명품 재킷 등을 '페이크 레디' 제품으로 표기해서 내놓은 적이 있었다. 왜 이들은 소비자들을 속였을까? 그건 진짜보다 가짜를 홍보해야 제품을 파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천연 모피와 가죽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값싼 대체재로서 가짜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동물 복지와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윤리적·사회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 가짜는 이들에게 천연 재료로는 구현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무리 동물 복지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짜 모피나 가죽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면 가짜의 위상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새로운 세대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에서 그것이 더 멋지고 가치 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가짜에 열광할 뿐이다.

가짜는 천연재료로 표현하기 어려운 과감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질감은 진짜 가죽과 거의 동일하지만 가볍고, 내구성이 더 높은 바이오 가죽이 개발되고 있다. 이제 패션에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은 명품 브랜드에서 만들어내는 '멋진 가짜'를 입고 있다. 이처럼 클래시 페이크는 원래의 것과 같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건강함을 더한 가짜 달걀

얼마 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살충제 달걀 파동이 있었다. 달걀에 대한 공포만큼이나 식량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

다. 가짜 달걀인 비온드 에그(Beyond Eggs)가 한 예다. 비온드 에그는 식물로부터 단백질 추출하여 만든 인공달걀 파우더를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달걀을 대신하여 비온드 에그를 제과제빵, 마요네즈 생산 등에 사용하고 있다.

비온드 에그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맛과 성분은 그대로고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건강함에 더 가치를 둔 소비자, 채식주의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AI 유행, 살충제 파동 등으로 사육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커질수록 '아주 멋진 가짜'의 입지는 계속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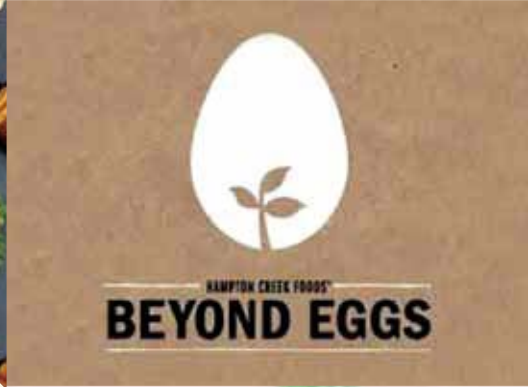
대두와 완두콩을 주성분으로 한 가짜 닭고기 역시 진짜 닭고기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며, 실제 고기처럼 육즙이 나오는 식물성 가짜 고기도 판매되고 있다. 이 시장의 발전 전망은 빌 게이츠, 골드만 삭스 등이 가짜 식량 개발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진짜와 가짜의 모호해지는 경계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가 짝퉁을 비꼬아 제작한 진품, 명품 브랜드와 스트리트패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제품, 대형마트 장바구니의 형태를 따라 한 명품 가죽 백 등 각종 패러디 상품들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브랜드보다 새로운 디자이너의 혁신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제품들은 기준에 따라 진짜라고도, 가짜라고도 할 수 있다. 주객이 전도되기도 하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짝퉁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한편,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이 진짜를 소비할 때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걷어내고, 아주 멋진 가짜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상현실은 실재하지 않지만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짜이고,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다.



특히 이 기술들은 전시회, 공연, 예술과 결합되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노는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 쇼핑, 진료, 업무 등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변화시켜 나가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 준다.

세계를 대표하는 IT기업들은 모두 증강현실 기술을 강조하는 등 우리가 누릴 현실을 변화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2018년 우리는 더 많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짜와 가짜, 실재와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SNS라는 가상공간에서도 수많은 가짜 이미지들을 접한다. 생략, 과장, 압축, 변형 등을 통해 실제의 모습을 왜곡한 이미지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추세는 점점 확대, 심화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변형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과연 현실과 가상공간 속, 진실과 거짓, 사실과 왜곡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

참고 도서 「라이프 트렌드 2018」, 김용섭 저



김성백 기장
현대중공업 크랭크생산부

추억의 김밥

오늘도 퇴근길에 '김밥 천국' 앞을 지나간다. 까만색 윤기가 흐르고 통깨가 듬성듬성 올라가 고소함을 더하는 김밥이 식욕을 돋운다. 한 줄 살가 망설이다 옛날 추억의 김밥이 문득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국민학교 3학년 가을 소풍 때로 기억한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친구 엄마가 내일 소풍 갈 때 점심으로 먹을 김밥을 말고 계셨는데, 설교 남은 콩다리를 나에게 한 개 건네주셨다.

“아, 이 맛은!” 단무지의 달달함, 참기름과 참깨의 고소함, 김의 향긋함이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였다.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조르기 시작했다.

나의 조르기는 해가 지고 저녁밥을 먹은 후에도 계속됐다. 하지만 엄마는 김밥을 만들 줄 모른다고 했고, 나는 밤새 김밥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잠을 설쳤다.

날이 밝았다. 아침밥을 먹는데 아버지 밥상에 김밥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점심 도시락에도 윤기가 흐르는 김밥이 있었다.

“우와, 김밥이다” 엄마는 빙그레 웃고 계셨다. ‘맛은 있으려나’ 하는 표정으로, 맛이 없으면 어때! 김밥인데!

세상을 날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보자기에 양은 도시락과 어제 싸둔 뚜껑이 녹슨 ‘동방사이다’ 한 병, ‘라면땅’ 2봉, 그리고 선생님 드리라고 삶은 달걀과 소금 봉다리를 담았다.

학교로 뛰어가니, 이번 소풍은 ‘송림촌’으로 간다. 소나무 숲 속에 바다가 보이는 이곳은 매년 소풍으로 갔지만 갈 때마다 새로웠다.

늘 그렇듯 수건 돌리기 등 그렇고 그런 장기자랑을 하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점심시간이 왔다.

친구들과 웅기종기 소나무 그늘에 둘러앉아 점심 도시락을 연다. 흰 쌀밥에 계란 프라

이 올리고 소시지를 담은 친구의 도시락, 쌀과 보리의 비율이 28인 친구의 도시락엔 물론 김치 반찬, 옆집의 김밥을 싸온 친구 등 조금은 신경을 쓴 듯 못 보던 반찬들이 보였다.

나의 김밥에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지 잔뜩 기대하고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하늘이 노래졌다. 기름기 흐르고 통깨가 보이던 김밥은 간 곳 없고 붉은빛이 감돌고 거뭇거뭇한 김가루가 보이는 김치 비빔밥이 있었다.

나는 바로 뚜껑을 닫았다. 눈가에 뭔가 핑돌고, 앞이 뿌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다 일어났다. 그리고 도시락을 사정없이 위아래로 흔들었다.

도시락에 김치 국물이 베어 나오는 느낌에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더니, 김밥의 탈을 쓴 김치 비빔밥이 아까보다 더 심하게 뭉쳐버렸다.

나는 “아이고 김밥인지 모르고 도시락을 흔들어서 다 뭉개 버렸네!”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 숟가락 떠먹어보니 그래도 김 맛에 참기름, 통깨 등의 맛이 섞여서 친구들의 반응은 괜찮았다.

증거물을 빨리 없애려고 허겁지겁 나의 도시락을 비우고 친구의 김밥 한개를 먹었다. “그래, 이게 김밥이지!”

그렇게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왔다. 김치 국물 잔뜩 묻은 도시락을 부엌에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저녁이 되어 엄마가 먼저 김밥용 김이 있는지 모르고 집에 있는 돌김에 단무지 대신 김치를 씻지도 않고 그냥 둘둘 말아 김밥을 싸는 것이라 말한다.

밥의 수분으로 김이 눅눅하고, 여기저기 김치 국물이 세어 나온, 뭉개진 김밥. 기름기 흐르는 김밥천국의 김밥보다 나는 이 김치김밥이 좋다. 기억 저편에 있는 바로 그 추억의 김밥을 먹고 싶다.

아이들과 부대끼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시간

3차수 유급휴직을 통해, 직장인으로서 접하기 힘든 장기간의 여가를 보내게 됐다.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껏 회사와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갔기 때문이라 여겼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번 유급휴직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결정했다. 아이들도 마침 방학이라 시간이 잘 맞았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제주도를 1차 여행지로 잡았다. 부모님의 고향은 목포지만, 생활터전을 옮겨 지금은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계신다.

감귤 수확철을 맞이했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침 잘됐다는 생각에 한걸음에 제주도로 날아갔다.

제주도에서 아이들은 직접 감귤을 따며 부족한 일손돕기에 나섰다.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고마움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만 같아 뿌듯했다.

2차로는 중국 여행을 목표로 세웠다. 아직까지 아이들과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한번도 떠나보지 못한 터라 큰맘 먹고 실행에 옮겼다.

한국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 우리 회사와 경쟁하는 나라이자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중국을 직접 가서 보고 몸으로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북경에 도착해보니 중국이 세계를 향해 나

아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중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짧게 설명해 주었다. 무엇보다 넓은 세상을 보며 아이들이 생각을 크게

갓기를 바랐다.

이번 유급휴직은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을 보면서 '경계심과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까지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회사로 돌아가면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 자신부터 원가 절감, 품질 관리, 납기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회사의 생존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장지광 반장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림부





이성일 기사

현대미포조선 자재지원부

막내 운동회를 다녀와서

“보아라 이 넓은 운동장에 청군과 백군이 싸운다~~”

직장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한 엄마를 대신해 모처럼 휴가를 내고 초등학교 2학년인 막내 운동회를 찾아갔다.

35년전 국민학생이었던 내가 어느새 학부형이 되어 자녀의 운동회를 방문하게 되니 기분이 묘했다.

아침 8시40분까지 학교에 와서 의자를 이동해 달라는 학교 운영진의 연락을 받고 아이와 함께 서둘러 운동장을 찾았다.

열심히 의자를 옮기고 하늘에 걸린 만국기를 보니 기분이 들떴다.

운동장에 학생들이 하나 둘 모이고 학년별로 모여 교장 선생님의 “지금부터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말씀과 함께 비로소 대단원의 막이 열렸다.

뽕빠레가 울리고 교장 선생님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예나 지금이나 교장 선생님 말씀이 지루하긴 마찬가지인가 보다. 여기저기 땀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 옛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우왕좌왕 어설픈 조회와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하나씩 진행됐다.

다른 학년들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잠시, 우리 아이가 속한 2학년도 4명씩조를 이뤄하는 ‘터널 이어달리기’ 경기가 시작됐다.

우리 아이는 같은 조 친구들 중에서 키는 제일 작았지만 나를 닮아서인지 달리기는 제일 잘했다.

이어진 저학년 이어달리기에서도 청군 반대표로 나가 배턴을 들고 달리는 아이의 모습이 마치 어릴 때 내 모습 같았다.

중간중간 학부모 줄다리기, 학부모 학년별 이어달리기, 엄마 달리기, 아빠 달리기 등 오랜만에 참가한 운동회라 전 종목에 참가해 보고 싶었으나, 줄다리기 하나 하고 몸살이 나버렸다.



마음은 급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내 모습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싶어 잠시 서글퍼졌다.

40대 늦둥이 아빠다보니 다른 학부모들은 거의 삼십대 중반인터라 왕년에 '달리기 선수였던 나지만 달리기 종목에는 이제 체력적인 문제로 껴볼 틈이 없었다.

자친 몸을 의자에 기대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응원한다.

신발까지 벗고 이 악물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 그 옛날 나의 초등학교 운동회가 떠올랐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만들어낸 흙먼지가 하늘을 덮어도, 조잘조잘 시끄러운 운동장에서 오후 1시까지 다리 아픈줄 모르고 뛰어 다녔던 그 때.

점심 시간 3남매가 나눠 먹었던 부모님께 서 싸 주신 맛있는 김밥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때 그 시절... 어린시절의 옛 추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서 도시락도 없고, 반별로 급식을 나눠

먹는다고 했다.

막내가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궁금해 교실 창문으로 살며시 쳐다봤다. 잠시 뒤 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엄마가 반찬을 올려줘야 한 손가락씩 깨작깨작 마지못해 억지로 입에 음식물을 밀어 넣던 녀석이 친구들과 까불면서 이것저것 아무지게 먹는 것이 아닌가!

그것뿐 아니라 운동회 때 같은 조였던 장애인 친구의 준비물, 배식, 간식으로 주는 아이스크림까지 막내가 대신 살뜰히 챙겨 주는 것이었다.

'집에서 어리광 부리던 막내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싶어 정말 대견스러웠다.

그동안 회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육아를 미뤘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됐다.

그리고 금방 금방 커 가는 아이인데 좀 더 시간을 내어 돌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얼떨결에 참가한 막내의 운동회였지만, 부모로서의 내 삶을 돌아보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김정원 직장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경청(傾聽): 마음을 얻는 지혜로부터

신문 기사에 따르면 자녀와 소통으로 문제를 겪는 부모가 많다고 한다. 또한 직장인의 61%가 '동료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렇듯 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은 어딜 가나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남들과 소통하려 하는가? 그것은 바로 소통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소통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소통을 실패와 성공으로 구분하지 않고,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라지는 순간까지, 어느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소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을까? 상대방과 소통을 위한 준비, 바로 경청의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경청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모두들 경험해봤듯이 말하는 것보다 몇 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효과적인 경청을 배우기 위해 「경청」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현대사회에서 차분히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소통의 지혜인지를 알려준다.

'들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주인공이 자신의 독선적인 행동을 뉘우치고, 상대의 마음을 얻어가는 감동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共感)'과 '상생(相生)'을 위한 경청의 소중함을 일깨워줘 여러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책을 읽으며, 중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봤다.

1.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고 공감을 준비하자. 그러나 대화를 시작할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판단과 선입견,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설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2. 상대방을 인정하자. 상대의 말과 행동에 잘 집중하여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녀든 부하 직원이든 상사든 한 인격체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것이다.

3. 말하기를 절제하자. 누구나 듣는 일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 받고 싶은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다. 남에게 이해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4. 겸손하게 이해하자.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들어줄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하다. 경청의 대가는 상대의 감정에 겸손하게 공감하며 듣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말을 진정으로 자기를 존중해주며 이해해 주는 것이다.

5. 온 몸으로 응답하자.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자.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공경하면서 듣는다는 의미다. 공자의 「논어」에도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하면서 경청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가슴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현대중공업 노사 상생을 지역민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현대중공업이 설 전에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구상인연합회 회장으로써 너무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난해 추석,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이 해를 넘기고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시장 경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추석 대목임에도 매출이 크게 줄어 가게가 폐업을 하는 등 임대료 내기도 어려울 만큼 경기가 바닥을 쳤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단협이 다행히 설 명절 전에 타결되어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모처럼 우리 주민들이 웃는 얼굴로, 과일, 떡, 생선 등 설 제수품과 반찬거리를 구입하러 왔어요.

지난 추석과 비교하면 매출도 30% 가량 늘어서 상인들이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한 발씩 물러나서 힘을 모아 준 것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전기는 정전이 되어 봐야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오랜 '노사 화합'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가치가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익숙함에 속아 절대 소중한 것을 잃어서는 안되겠죠.

현대중공업 노사는 우리 동구의 자랑이자 기둥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은 모두 회사가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소통과 대화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여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구상인연합회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중공업도, 동구 경제도 예전처럼 살아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영필

울산 동구상인연합회장





조해영 대리
현대중공업 특수선의장설계2부

마음의 섬을 찾아 - 지심도(只心島)

사랑 이야기 가득한 동백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에 갇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죠. 우리 삶에도 때론 마음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자연의 향기와 역사의 향수가 흐르는 곳, 거기에다 음식의 향기가 보태지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아린 역사에도 긴 세월이 묻으면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저 멀리서 마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섬, 바로 지심도입니다.

수백년의 원시 동백숲이 섬을 덮고 있어, 지심도는 '동백섬'으로도 불립니다. 지심도의 동백꽃은 12월 초부터 피기 시작해 4월 하순이면 대부분 꽃잎을 감추죠. 지심도엔 동백이 주종을 이루지만 후박나무와 해송도 함께 자랍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섬 모습이 '마음 심(心)'을 닮았다 하여, 그 이름도 지심도(只心島)입니다. 섬 모습만 마음을 닮은 게 아니라 천연 동백숲 길도 마음을 닮았죠. 숲길을 걷다 보면 내 마음까지 그윽한 동백숲에 젖어 듭니다.

지심도는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면적 36만제곱미터(약 1만평), 해안선 길이는 약 3.7킬로미터로 작고 아늑한 섬입니다. 섬 한 바퀴를 돌면, 딱 산책코스로 그만입니다.

지심도 선착장에 내리면 가장 먼저 맞는 건 '사랑입니다'라는 시 한 편입니다. 사랑,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말이 아닐까요? 빛과 깊이를 더하는 이 말을 자주 하다 보면 행복이라는 마법에 걸리고 맙니다.

원시 동백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길을 걷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포근하고 아늑하게 남을 보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파도와 바람에 짝이고 닳은 바위절벽에 서서 무심코 지나는 배를 바라봅니다. 저 배는 어떤 세월을 싣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시련의 세월을 견딘 해식에는 무척이나 눈부십니다.

아픈 상처까지 치유하는 곳

지심도에 가려면 승용차로 부산신항과 거가대교를 거쳐 장승포 선착장에 도착해, 지심도행 배를 타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사상시외버스터미널이나 부산지하철 신평역에서 장승포행 버스를 타고 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로 10분쯤 가면 장승포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지심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섬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지심도에 포대와 탄약고를 설치했는데요. 지난 1936년 7월 포대 건설을 시작해 1938년 1월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서치라이트 보관소를 비롯해 일제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죠.

하지만 이내 곧 지심도에서 역사적 상처를 위로하는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97미터 정



상에는 사랑의 하트 조각상이 설치돼 있죠. 심장과 사랑으로 바라본 세상과 인생, 상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눈물처럼 똑똑 떨어진 동백 낙화를 모아 연인에게 사랑을 전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호젓한 섬에서 동백꽃을 바닥에 두고 청혼한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이벤트가 있을까요?

곽재구 시인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동백꽃은 하늘의 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땅 위에 떨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찾아온다. 땅의 마음(地心)이 동백의 꽃송이로 피어났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왔으니 지심도에서 길 위의 동백꽃이 우려낸 아름다움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라고 말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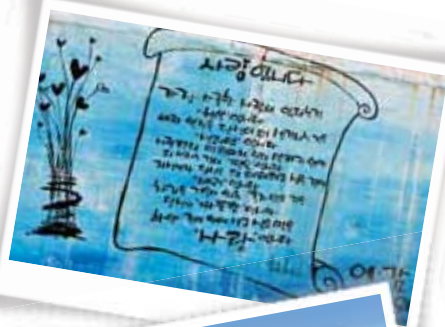
여러분도 지심도의 동백꽃으로 평소 아내와 가족에게 말로 다하지 못한 사랑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윽함이 떠나는 발걸음을 붙잡아

지심도에서 장승포항에 돌아와, ‘유림식 건강한 빵’으로 소문난 빵집에 들렀습니다. 주인에게 추천 받은 메뉴로 주문하니 하트 모양으로 꾸민 커피, 그리고 윤기 나는 빵을 함께 갖고 왔습니다. 빵을 자주 먹지 않지만, 이 집의 빵은 담백하고 은근하여 입맛이 절로 돋습니다.

당일 제빵해 당일 판매하고, 보존제나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품질은 믿을 만하고 맛은 무척 좋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아야 제 맛이 난다”는 말은 모든 음식에 통하나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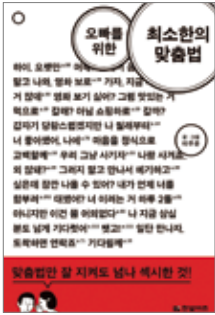
가게 안에 이런 생활규칙(Life Rule)이 걸려 있습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너 자



신에게 당당하라. 미안하다고 말하라. 남을 용서하라. 최선을 다하라.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라. 타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라...”

지심도는 어느 계절에 가도 좋은 섬입니다. 계절마다 특색 있는 매력을 쏟아내죠. 울산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화려하진 않지만,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매력의 실체를 찾아 저는 돌아오는 봄에도 다시 한번 지심도를 찾아갈까 합니다.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빠를 위한 최소한의 맞춤법 (이주윤 著)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혼동하기 쉬운 단어 및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각 챕터별로 유쾌한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어 따분하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단어의 쓰임에 맞게 예문을 제시하여 암기가 용이합니다.

결제: 이 돈을 제가 다 썼다고요? **결재:** 재가로 순화 (재가의 의미: 안건을 허가함)

맞춤법의 중요성에는 남녀노소의 차가 없지만, 새로운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사우 분들에게는 특히나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틀리는 상대와는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이죠. 마음에 드는 이성과의 연애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발전설계부 이정호 과장



스님의 주례사 (범륜 著)

이 책은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주제를 통해 세상에 공경이란 티끌만큼도 없다는 인과(因果)의 법칙과, 수레바퀴가 소를 따르듯 모든 인연 맺음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것, 그러하기에 스스로의 마음밭을 잘 다스려 자신만의 생을 피워 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범륜 스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단순히 연애의 방법론을 보여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관계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에 대해 장밋빛 꿈을 꾸며 새로운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려고 하는 예비부부와, 이미 사랑이란 이름으로 결혼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부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현대미포조선 종합설계부 김유진 대리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 그릇 (김윤나 著)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 그릇의 상태에 따라 말의 수준과 깊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릇이 깊어 담은 말이 쉽게 새어 나가지 않고, 넓은 그릇에서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은 말이 쉽게 흘러넘치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살면서 만들어진 '말 그릇'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말 그릇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말 그릇을 보다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우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재무성과분석팀 김영진 차장



울곡 인문학 (한정주 著)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 울곡 이이의 삶과 철학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이는 20세의 나이에 11개의 선언문으로 구성된 자경문(스스로 깨우치고 경계하는 글)을 짓고 이를 삶의 지표로 삼아 평생 지켜나가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올바른 삶의 길을 걷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인간' 이이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서로를 독려하고 참된 우정을 나누었던 우계 성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스승 퇴계 이황 등 그가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도 소개하고 있어 흥미로운 역사서라 할 수 있습니다. 고전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 사우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현대중공업 기술기획팀 노우현 과장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사보에 게재되신 분들께서는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시설 이용권(1만원)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사보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습관이 답이다 (툼 콜리 著)

오랜만에 자기 계발의 의지를 다지고자 적당한 책을 찾던 도중 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그룹의 몇 퍼센트는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실증적인 수치를 통해 습관을 고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줄부를 제외하고 부자의 자손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읽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릴 때 단 하나라도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성인이 됐을 때 그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사넛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지만 좋은 습관을 키우고 나쁜 습관을 버려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공의 꿈을 계속 키워가야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건조부 김기학 과장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 (스콧 할츠만, 테레사 포이 디제로니오 著)

이 책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조건으로 가족의 가치관, 헌신과 소통, 지원과 지지 등 총 8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첫째 조건인 가족의 가치관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행복한 가족은 한 방향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저자의 말에 문득 조계사의 도문 스님이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르듯 가족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여 가족의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을 뭉치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 사우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안병선 기사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정문정 著)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도 다투어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서도 '사람 대하기 참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누가 되지 않도록 삼가며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각자도생, 그러나 생존에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작가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미포조선 선체조립부 정승우 기사



위대한 개츠비 (F. 스콧 피츠제럴드 著)

누구나 이미 봤거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책입니다. 주인공 개츠비는 매일 밤 저택에서 화려한 파티를 열고 자신이 가진 부를 맘껏 뽐내며 살아갑니다. 이는 모두 첫사랑인 데이지를 찾기 위함인데요.

개츠비는 옆집 사는 닉 캐러웨이를 통해 첫사랑인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꽃 피워가는 것도 잠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저는 저자가 개츠비에게 왜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주었을까를 의문이 들었는데요. 아마도 한 여인을 향한 그의 순애보적인 사랑 때문이었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개츠비처럼, 여러분도 현실에 살지만 순수한 가치를 이상으로 갖고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현대E&T 문태준 사원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합니다!”

결혼



현대일렉트릭 경영진단팀
정진호 대리

신랑 정진호·신부 김소영
2월 24일

서로가 마주보며 다져온 사랑을
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선박운항연구실
김준희 주임연구원

신랑 김준희·신랑 조진주
2월 25일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로 아껴주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야 사랑한다~



현대중공업 특수선기본설계부
김부건 사원

신랑 김부건·아내 표주희
3월 3일

2002년 봄날 처음 만나
2012년 겨울 사랑하고
2018년 봄 결혼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없이 든든한
벗이 되어 가나인 길을
동행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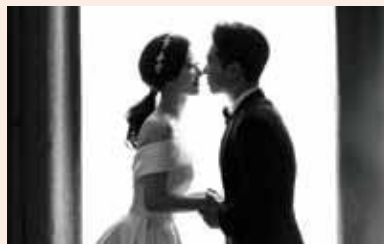
탄생



현대정보서비스㈜
박신영 대리

신랑 박신영·신부 주유진
3월 3일

여수에서 여행가서 만난
너와 결혼하는 나.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유진아.



현대중공업 ITER 특수기기부
박진후 사원

신랑 박진후·신부 김혜지
3월 11일

아름다운 나의 신부 김혜지,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아가자♥



현대미포조선 도장2부
박종민 대리

아빠 박종민·엄마 이아름·아들 박승모
2월 8일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현대중공업그룹 가족들의 결혼, 출산, 돌 등 소중하고 행복한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사우 분들은 매월 20일까지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gp069@h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탄생



현대삼호중공업 품질경영부
류동표 대리

아빠 류동표·엄마 김은미·딸 류재희
2월 3일

10개월이 이렇게 긴 시간인줄 몰랐고,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손영진 과장

아빠 손영진·엄마 차정현·아들 봄울이(태명)
2월 12일

봄울아~ 아빠 엄마 곁으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늘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자~~
사랑해



현대삼호중공업 선행도장부
김 훈 사원

아빠 김 훈·엄마 김연우·아들 행복(태명)
2월 20일

최고의 선물이 되어 준 우리 행복아.
언제나 함께 할게.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사랑한다♥

백일



화영산업㈜
이현근 소장

아빠 이영휘·엄마 양혜미·손자 이민우
3월 17일

손자, 손녀가 더할 나위 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다둥이 할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돌



현대중공업 해양생산지원부
이연희 기사

아빠 이연희·엄마 김희영·딸 이시현
2월 25일

사랑스런 시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이귀덕 대리

아빠 이귀덕·엄마 정다운·딸 이채운
3월 3일

사랑하는 우리 딸 채운아~!
세상에 태어나 맞이한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더 많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행복한 추억, 함께 만들자~

평창올림픽 후유증: 스키장 사고

질 문

안 사원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한 국가대표가 초보자 수준에서 하프파이프를 완주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 하프파이프 스키에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안 사원은 대학교 때 계절학기 수업으로 스키장에 한 번 가본 초보자이지만, 상급자인지 묻는 직원에게 상급자 코스를 탈 수 있다고 용감하게 답하고는 슬로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프를 타자마자 빠르게 가속되었고, 안 사원은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두 다리 십자인대가 모두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하고 약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 사원은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지만, 스키장에서 미리 초보자인지 잘 확인해서 상급자 슬로프에 입장을 막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안 사원은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과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답 변

스키장에서 사고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스키어의 부주의한 행위, 스키장 시설물의 관리상 잘못 그리고 스키어와 스키장 시설물 관리자의 잘못이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키어가 넘어지거나 스키어끼리 부딪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스키장 시설물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스키장 시설물 관리자가 시설물을 잘못 관리해서 스키어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면 리프트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슬로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을 한참 동안 방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스키장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키를 타는 사람이라면 '스키가 경사진 곳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속도감과 스릴감을 즐기는 스포츠라는 사실과 그에 상응하는 사고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스키를 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선은 사고 당사자의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원도 초급자가 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코스를 이탈하여 나무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코스 선택은 스키어들이 자신의 실력 정도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사망한 자의 과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 92나34898).

또, 초급자가 상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뒤따라 오던 다른 스키어가 스노보드를 추돌하여 초급자에게 9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초급 수준 스노보드 실력에도 상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일정 수준 사고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 2011가단467525).

안 사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 사원은 초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스키장 리프트 직원에게 상급자 코스를 탈 수 있다고 주장한 다음 슬로프에 올라갔습니다. 막연히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시청 경험을 근거로 자신도 하프파이프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한 과실이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하프파이프 코스에 안전요원 배치 여부, 안내방송이나 경고판의 설치 여부, 슬로프 상태, 안전펜스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스키장의 관리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도에 따라 안 사원이 입은 손해의 10% 정도 이내에서 스키장의 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키장에서는 관리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고 있으므로 안 사원은 비록 자신의 잘못이 매우 크지만, 스키장의 관리 책임이 부족했던 점을 잘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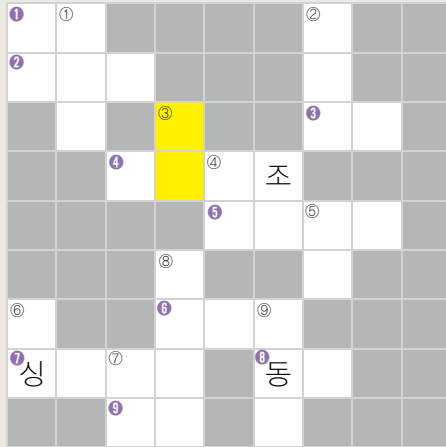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nhc.co.kr), ☎02-746-4667

현중이네 ③

by 연자씨



십자말 풀이



가로 열쇠

- 1 은어로, 나이 많은 사람이나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p.32 참고)
- 2 한약명으로는 수근 또는 수영이라 불리며, 해독과 혈액을 정화시켜주는 식품으로 향이 뛰어나며 식감이 부드러운 나물. (p.40 참고)
- 3 잘못된 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구차한 변명.
- 4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는 사람을 이르는 사자 성어.
- 5 한국인 최초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클래식 신예 000이 오는 4월 현대예술관에서 피아노 리사이틀을 갖는다. (p.58 참고)
- 6 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 7 땅이 가라앉아 생긴 구멍을 이르는 말.
- 8 울산 중구는 약 4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 꽃을 구화로 지정하고, 학생공원에서 이 꽃과 관련한 축제를 개최한다. (p.34 참고)
- 9 학문을 배우거나 수업을 받음을 이르는 말.

세로 열쇠

- 1 푸르고 곧게 자라는 특징이 있는 이 나무는 선비의 지조, 인내, 절개(節操)등을 상징한다.
- 2 고급화된 야영시설을 의미하는 말. (p.36 참고)
- 3 아산 정주영 창업자는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일해달라며 '00한 마음을 가집시다'라고 당부했다. (p.7참고)
- 4 샷을 받고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데에 쓰는 배. 여객선, 화물선, 화객선 따위를 이룸.
- 5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과 의리.
- 6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중심성 비만을 보이는 질환. 00 증후군. (p.48참고)
- 7 2로 나누어서 나머지 10이 남는 수.
- 8 2013년 현대중공업이 설립한 사내대학으로, 조선해양학과와 기계전기학과로 구성돼 있다. 2년제인 현대중공업 0000을 졸업하면,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 받는다. (p.20 참고)
- 9 현대로보틱스 로봇시스템기술팀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000 컨설팅 및 로봇 000시스템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p.26 참고)

퀴즈 당첨자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김원주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5부

Hotel Hyundai 뷔페권

김태균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김민규 현대중공업 PLM추진팀

한승철 현대중공업 조선생산지원부

조자연 해안기업(주)

김병희 현대미포조선 배관설계부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김동현 현대중공업 대조립5부

성용호 현대미포조선 선행의장부 신현산업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임우락 현대중공업 선박구조연구실

심성식 현대중공업 기계의장부

안소연 현대중공업 회계팀

울산현대축구단 상품권(2매)

여창동 현대중공업 SEMI-RIG공사관리부

김현수 현대중공업 ICT기획팀

이정현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조재혁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김기욱 현대미포조선 도장2부

OUTBACK 아웃백식사권

박성진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Hotel Hyundai 목포 뷔페권(2인)

정승열 현대삼호중공업 의장2부

Hotel Hyundai 케이크 교환권(1매)

백종인 현대삼호중공업 선행도장부

문경수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사내 매점 간식 교환권(1만원)

전태용 현대삼호중공업 기계시운전부

박정은 현대삼호중공업 중무팀

정승우 현대삼호중공업 전장선설계부

신희권 현대삼호중공업 품질경영부

최봉열 현대삼호중공업 의장통관팀

신안 천일염

정대현 현대삼호중공업 판넬조립부

정대훈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지원부



STARBUCKS 기프트 카드(2만원)

이진완 현대삼호중공업 사업기획부

이범찬 현대삼호중공업 건조부

지난호 정답



세로 3번의 정답을 3월 16일까지 이메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휴대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
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
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
습니다!

문자 메시지

✉ 받는사람

news@hhi.co.kr

정 답

회사명

부 서

이 름



현대중공업 도장부 박태욱 기사

날씨 추운 날 사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사보 덕분에 좋은 소식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입춘입니다. 얼었던 얼음이 녹아 내리는 것처럼 우리회사 사우들의 마음도 녹아 내렸으면 합니다. 현대중공업 파이팅!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김태균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사보를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과 알찬 소식들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선형도장부 함선욱 과장

최근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눈 축제 관련 기사가 관심이 많이 가고 유용한 것 같습니다.

곧 3월이라 꽃구경이 시작되는데요, 사우들에게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해양시운전부 김재석 기사

각종 화재 사고 및 지진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을 힘차게 응원했던 것처럼, 우리 사우들도 '현대중공업 무재해 2018'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녹색경영팀 오형정 사원

사보를 보면 그 달의 현대중공업 그룹사의 소식을 단번에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우리 회사 소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2월호 소개된 <자랑스러운 사우들> 코너 명처럼 소개된 분들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힘을 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파이팅!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박성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글을 읽고 경기를 보니 모든 경기가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을 보니, 저 역시 회사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노사협력팀 이보영 사원

현대중공업이 울산 유일의 미혼모 시설인 물푸레 복지재단에 나눔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조선업 불황에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역 사회를 배려하는 현대중공업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가족 2월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소감, 아쉬운 점이나 다음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3월 16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기재)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사보에 게재되신 분들께서는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시설 이용권(1만원)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사보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20th

현대예술관 개관 20주년

20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봄 시즌 공연일정



03.14

일본 뉴에이지 그룹
'어쿠스틱 카페'
화이트데이 콘서트



04.09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04.12-04.28

전대미문 여야화합 폭소 스캔들!
연극 '룸넘버13'



04.20-04.21

유니버설발레단
'지젤(Giselle)'